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0호 (8월 24~30일)



노작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과 하신 담화

통일애국의 길에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

특집 - 방북대표구속 규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
방북대표구속은 친미예속성의 발로

평양축전공동보도문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이회창의 인맥정치 그 실상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0호 (8.24~30)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 70 (1981)년 7월 3일에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회장과 한 담화문



미국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남침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지만 미국사람들은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어 남조선을 영원히 강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미국국회의 하원의원 쏠라즈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그에게 미국이 지금 우리 나라를 ≪두개 조선≫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조선인민은 한 핏줄을 이어받으면서 몇천년동안 한 강토위에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둘로 갈라놓을수 있겠습니까. 미국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으려고 하여도 우리 민족은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방전에 일제놈들은 36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있으면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고 조선사람들이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조선 사람들의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이처럼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나 구경은 조선인민앞에 굴복하고 섬나라로 쫓겨가고 말았습니다.

조선인민은 절대로 미국사람들의 노예로 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쏠라즈에게 우리가 남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국사람들이 우리가 남침하려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번에 우리 나라에 와서 본 바와같이 우리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많은 것을 건설해놓았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잿더미로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사람들은 공연히 우리를 의심하면서 남조선에 군대를 계속 두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터가 선거후에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였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 왜 그것을 취소하였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은 카터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북조선의 군사력이 남조선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4만여명의 미군과 70여만명의 괴뢰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는 그렇게 많지 못하며 군사장비를 놓고 보아도 우리 자체로 만든 것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에 대한 상식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편에 비하여 2, 3배이상의 역량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남침위협에 대해 떠들었지만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이 연합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통일된 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고 그 어떤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주독립국가로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쏠라즈에게 미국이 지난날 우리와 전쟁을 하였지만 오늘 조선의 통일을 도와나선다면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쏠라즈는 나의 말이 다 옳다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사람들과 재미교포들에게 우리에게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조선은 통일된 다음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써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해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에게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어도 우리가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해설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한 다음 통일정부의 수반을 누가 하겠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데 그것은 북과 남에서 윤번제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에게 조선이 통일되어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남조선에 투자한 자본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하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의 보고에서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에 대해 ***않을 것이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서부독일을 한 학자를 만났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선이 통일된 다음 서부독일자본가들이 남조선에 투자한 자본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들과 거래를 할 것이라고 했더니 그는 우리의 입장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서부독일자본가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이 우리가 왜 남조선의 현당국자와 회담을 하지 않는가고 하는데 우리는 그와 마주앉을수 없습니다. 그는 이전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야수적인 살인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여 한꺼번에 수천명의 광주시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마주앉아 회담을 한다면 그것은 남조선의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을 배신하는 행위로 될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 우리가 남조선당국자와 회담할수 없다면 누구와 회담을 할수 있겠는가고 물어볼수 있는데 우리는 남조선의 각정당, 사회단체대표들, 해외에 있는 민주인사들과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파쇼분자들이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주인사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그와 회담할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국회의원들과 부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이 미국에 돌아가면 인차 해외에 있는 교포동포들과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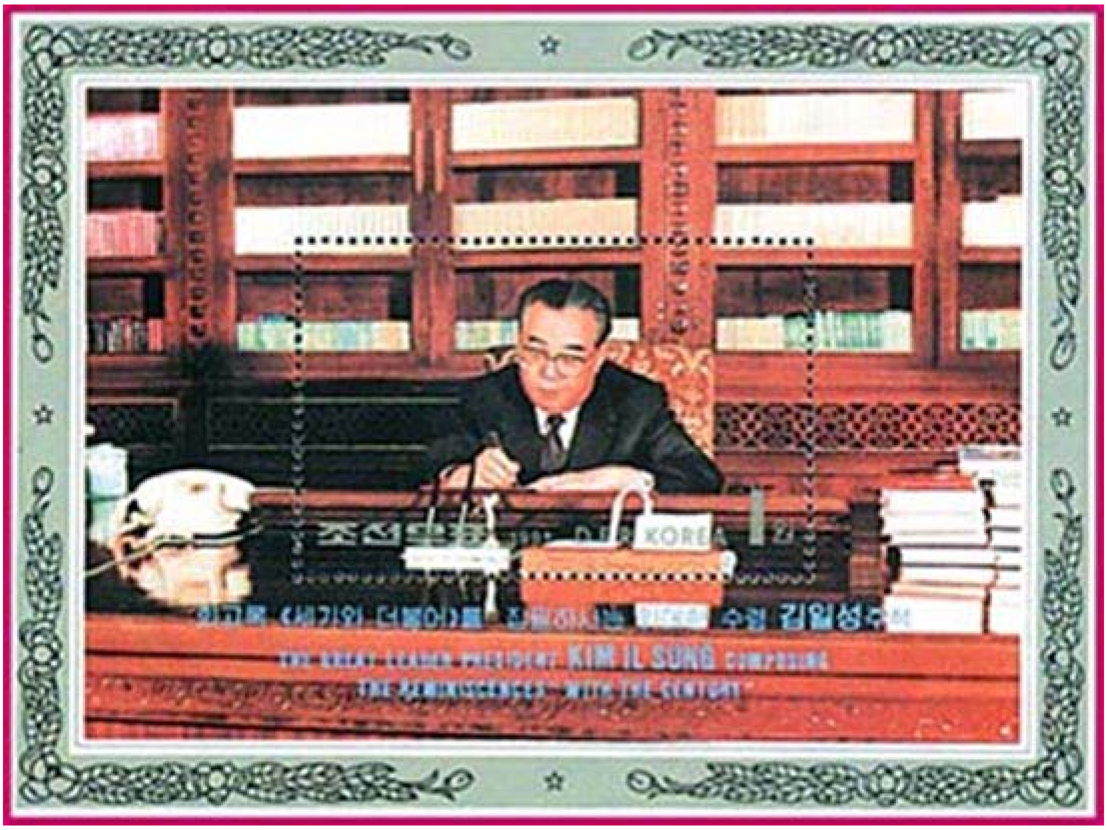
선생은 이번에 조국내왕의 길을 열어놓은 것만큼 앞으로 조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이 다음번부터는 부인과 아들딸들을 데리고 조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카터가 집권하고 있을때 미국에는 조선동포들이 조국으로 내왕할수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리라고 믿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1930년 여름

세기와 더불어 2권



최창걸은 류하, 해룡, 청원일대를 왔다갔다하면서 기층당조직을 내오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조직들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혁명운동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의 대결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때에 8.1폭동의 여파까지 미쳐 혁명조직들이 무더기로 파괴되었다.

해룡과 청원사이에는 내가 잘아는 길림시절의 동창생이 한 명 있었다. 유격대초창기 우리 부대가 있다가 남만원정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간 중국동무였다. 그 동무의 집에 얼마동안 가있으면 그 사이에 백색테로선풍도 좀 가라앉을 것같고 그러면 나도 위험한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길림을 떠나는 날 몇몇 여동무들이 나를 역에서 전송하였다. 부자집따님들처럼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 바래다주니 나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무난히 차에 오를 수 있었다. 군벌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신사들이 공산주의운동같은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길림본역으로 차를 타지 않고 적들의 경계가 덜 미치는 변두리역에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칸에서 뜻밖에도 장울화를 만났다.

장울화는 심양으로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심양으로 가기전에 혁명할 길이 없겠는가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 길림에 갔던 것인데 가보니 살풍경이더라는 것이었다. ≪알만한 조선사람들은 다 숨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군경이 아니면 왜놈개들뿐이더라. 성주를 만나러 갔는데 만날 수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심양으로 가는 길이다≫하면서 나를 다짜고짜 자기가 자리잡은 1등칸으로 데리고 갔다. 그도 내가 테로를 피해 숨어 다니는 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따라 순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였다. 출입문은 모조리 봉쇄해놓고 차에 오르는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조사하였으며 어떤 승객들에 대해서는 소지품고 보따리까지 사정없이 뒤져보았다. 검표원들도 그날은 다른때보다 류달리 엄격하게 차표조사를 하였다. 8.1폭동의 후유증이 도시나 촌락 뿐 아니라 열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장울화의 도움으로 나는 해룡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순수들이 승객들에 대한 조사를 살벌하게 하였지만 중국신사복을 쭉 빼아입은 장울화한테는 감히 말도 걸지 못하였다. 나도 장울화와 같이 앉아있다나니 순사들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표원들은 차표조사를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차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장울화의 배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 품에는 그때 문건도 있었고 비밀자료들도 있었다. 경찰이 몸을 수색하게 되면 나도 무사할 수 없었다.

해룡역에서 도착하니 홈과 개찰구옆에서 일본영사관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진을 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나는 육감으로 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꼈다.

해룡역에 있는 적이 일본경찰들이라고 하니 신경이 몹시 날카로와졌다. 중국의 순사나 일본순사나 다같은 순사이지만 일본순사들에게 걸려들면 더 용수가 없었다. 만주에서 조선혁명가들을 붙잡기만 하면 사정없이 국내로 압송하거나 관동도독부법원들에서 재판을 하여 려순, 대련, 길림 등지에 있는 감옥들에 마구 잡아넣을 때였다.

내가 어떻게 할 지 결심을 못하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있을 때 장울화가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였다. 같이 가서 아버지도 만나보고 자기의 장래문제도 의논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원래 초시역에서 차를 내려 목적지까지 가려고 계획하였다. 초시역으로 가자면 다섯정거장이나 여섯정거장 더 가야 하였다. 장울화가 해룡역에서 내리게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지므로 뜻밖의 위험이 조성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다.

역에는 마침 장울화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다. 영구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해룡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었다. 허리에 모갑싸창을 타 수십명의 가병들이 우리 앞에 고급마차를 들이대였는데 행색이 여간 으리으리하지 않았다. 그통에 영사관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감히 우리에게 접어들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급마차를 타고 가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보란듯이 이 역전거리를 달리었다. 그날 나는 고급여관에 들어 장울화네와 함께 지내면서 휴식을 잘하였다.

장울화네는 보초도 자기네 가병들로 세웠다. 여관둘레에 가병들이 두겹세겹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있었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면서 나를 특별방에 안내해주고 좋은 음식을 연방 청하였다. 원래 그는 무송시절부터 나를 보면 여간 살틀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누구인가고 물으면 롱삼아 양아들이라고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롱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진심을 가지고 양아들, 양아들 하였다.

나는 장울화가 큰 부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송에 있을 때부터 그와 가깝게 지냈다. 어려서부터 지주가 착취자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울화와의 관계에서는 그것때문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 사람이 어질고 양심적인데다가 반일감정이 강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깝게 지냈는데 위급한 대목에서 도움을 받고 보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평소에 지주의 아들이라고 장울화를 따돌리었다면 그들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나를 그처럼 성실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혁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는 장울화와 같은 부자의 자식이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와 힘을 합쳐 나를 도와준 것은 그가 나와의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내가 무송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부터 장울화는 자기와 나 사이에 부자와 가난한 자, 중국사람과 조선사람이라는 간격을 두지 않고 친근하게 지냈다. 그는 나라를 강탈당한 우리의 설움은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주었으며 조국을 광복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이상을 충심으로 지지해주었다. 장울화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조국과 중화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민족의 비운에서 중화민족의 불행을 보았다.

장울화의 아버지도 부자이지만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지조가 강한 애국자였다. 그의 애국충정은 그가 지은 자식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는 맏아들이 태어나자 울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울중의 두 번째글자 ≪중≫은 ≪중화민국≫이라는 중국의 국호에서 첫 글자를 따온 것이었다. 둘째한테는 울화, 셋째한테는 울민이라고 이름을 연이어 지어주었으며 넷째가 태어나면 울국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런데 넷째는 출생하지 않았다. 네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합치면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된다.

장울화는 그때 나에게 명년 봄이나 가을쯤에는 일제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제놈들이 들어오면 맞받아나가 싸우려고 한다.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장울화는 자기도 투쟁을 하기는 하여야겠는데 집에서 허락하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나는 말해주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너도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싸우기로 마음먹었으면 혁명을 해야 한다. 인제 다른 출로라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국지사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나 하고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 두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길이고 중화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 너야 다른 것이 있다. 중국사람들과도 같이 혁명을 해야지. 일제놈들이 쳐들어오면 그때에는 조선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같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어렇게 그 여관에 2-3일동안 묵으면서 장울화에게 반일사상을 불어넣었다. 장울화는 나의 권고를 듣고 나서 학교를 마치면 자기도 혁명을 하겠노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정 바쁘면 너의 신세를 또 질 수 있으니까 심양 어디에 가 있겠는지 주소나 하나 적어달라≫고 하여 그의 심양주소를 받았다. 그런 다음 목적지까지 무사히 빠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없겠는가고 하였다.

장울화는 너를 돕고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자기네 마차에 태워 해룡현과 청원현의 경계에 있는 중국동무의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내가 찾아간 그 동무의 집도 역시 장울화네와 같이 잘 사는 집이었다. 중국혁명의 선각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중국혁명이라는 것이 특이한 혁명이었다고 늘 생각하게 된다. 로동계급이나 농민과 함께 인테리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도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 많이 참가하였다.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도 인간의 자주성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혁명운동에 참가할 각오를 가질 수 있다. 자산가출신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싸우는 투사나 선각자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출신이 아니라 세계관에 있다.

인생을 하나의 도락이라고 보게 되면 혁명을 못하고 부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고 말며 도락을 못누려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자도 혁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혁명이라고 하여 이런 선각자들을 다 따돌리게 되면 혁명 그 자체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통일애국의 길에 손잡아 이끌어 주시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윤정원씨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덕망으로 7천만겨레를 차별없이 한품에 안으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며 역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민중이 찬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7천만겨레 모두를 통일애국의 길로 따뜻이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대해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정원 :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지향에 기초한 민족적화합과 대단결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 때문인거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덕망으로 우리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장군님께서는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앞에 놓으시고 뜨거운 동포애와 큰 포옹력으로 온 겨레를 민족번영과 조국통일의 길에 ****십니다.

사회자 : 어떻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셔서 조국통일과 민족적단합에 공헌하셨는데요. 저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해주셨잖아요.

윤정원 : 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저작을 주체 87(1998)년 8월에 발표하셨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5대방침에서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포섭하고 변화시키시려는 확고한 입장과 일관한 정책을 다시금 표명하셨는데요.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해도 과거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을 아량으로 대했고 이남의 집권상층이나 여당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민족대단결에 기초해서 단합할것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애국애족을 앞에 놓으시며 민족적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단결해서 조국통일의 한길로 손잡고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덕망이 어려있는 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해내외 우리 겨레모두를 경탄시키고 있죠.

윤정원 : 해내외 각계층인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치다, 겨레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원대한 도량과 포용력에 머리가 숙여지며 장군님의 통일방침에 기여하자고 격조높이 외치면서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분기해 나서고 있습

니다. 이남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은 서로의 사상과 이념, 신앙을 존중하며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적극 연합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감복을 금치못하고 있고요, 한때 길을 잘못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단합의 길에 서고 있어요.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운동은 온 겨레를 차별없이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봐집니다.

윤정원 : 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이남과 해외에서 민족적양심을 지니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를 막론하고 따뜻이 안아 보살펴주시죠.

사회자 : 그렇죠. 문익환목사님과 박용길장로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만을 놓고도 잘 알수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저는 얼마전에 문익환목사님과 동행했던 분들을 만나서 그때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주체 78(198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에 이르는 목사님의 평양방문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펼쳐보인 그런 뜻깊은 나날이었다고 그럽니다. 문목사님께서 평양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장군님께서는 문목사의 생활과 활동을 세심히 보살펴 주셨고 일정도 그가 희망하는데로 해주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오매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접견도 하게되었고 허심탄회한 통일견해도 말씀 올렸다는 거죠.

사회자 : 네, 문목사님은 장군님의 배려로 이북의 통일관계부문 일군들과 접촉해서 통일문제를 협의하기도 했고 친인척들과 혈육의 정도 나눴다던데요.

윤정원 : 문목사님께 돌려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는 날을 따라 더해만 갔는데 그분께서는 오라를 지고도 굴함없이 싸우는 문목사님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한 일을 한 그를 구원하기 위한 사업을 몸소 조직하셨다고 그래요.

사회자 : 네, 그때 이북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해서 파쇼독재자들의 야수적만행을 준열히 규탄했죠.

윤정원 : 장군님께서는 문익환목사구원대책위원회를 내오고 그의 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이도록 하셨구요, 또 그의 애국적인 투쟁을 내외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조국광복45돌을 계기로 문목사님께 조국통일상도 수여하도록 하셨죠.

사회자 : 문목사님께 돌려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가하는 것은 그가 사망했을 때 조전도 보내주시고 부고를 내시고 그의 장례식에 조의대표단을 파하도록 조처해주신 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죠. 어떻습니까 문목사의 통일의지를 안고 평양에 간 박용길장로에게도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푸셨잖아요.

윤정원 : 네, 그럼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문익환목사를 만나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 심정 그대로 박용길장로를 뜨겁게 맞아주셨고요, 주석님께서 문목사에게 돌려주신 은정을 박장로에게 그대로 돌려주셨죠.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박용길장로를 친히 접견하셨고 53년만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추모까지 하도록 해주셨어요.

사회자 : 장군님께서는 박장로의 환송연회까지 성대하게 차려주도록 하셨다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목사와 박용길장로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 그 배려는 우리 이남민중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이 정녕 끝을 모르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유명무명의 열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셨고 수많은 열혈열사들을 이북의 대학들에 명예학생으로 등록하도록 하셔서 영생의 삶을 영위하게 하신 사실을 비롯해서 그분께서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친 겨레에게 돌려주신 믿음과 사랑, 은정은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런 대해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지난날 반공의 길에 섰던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품을 찾아 이북으로, 평양으로 가며 통일애국의 길에 용약 나서는게 아니겠어요.

사회자 : 그렇죠. 그렇게도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버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으니 우리 겨레의 민족적자긍심은 정말 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계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단상에 높이 모시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줄 압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애기를 들으면서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마음가짐 새롭게 다지죠. 통일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있습니다.

특집

방북대표구속 규탄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기자회견

구속철회촉구대회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훼손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사법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7인구속 관련 성명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활동에 대한 입장

언론 본연의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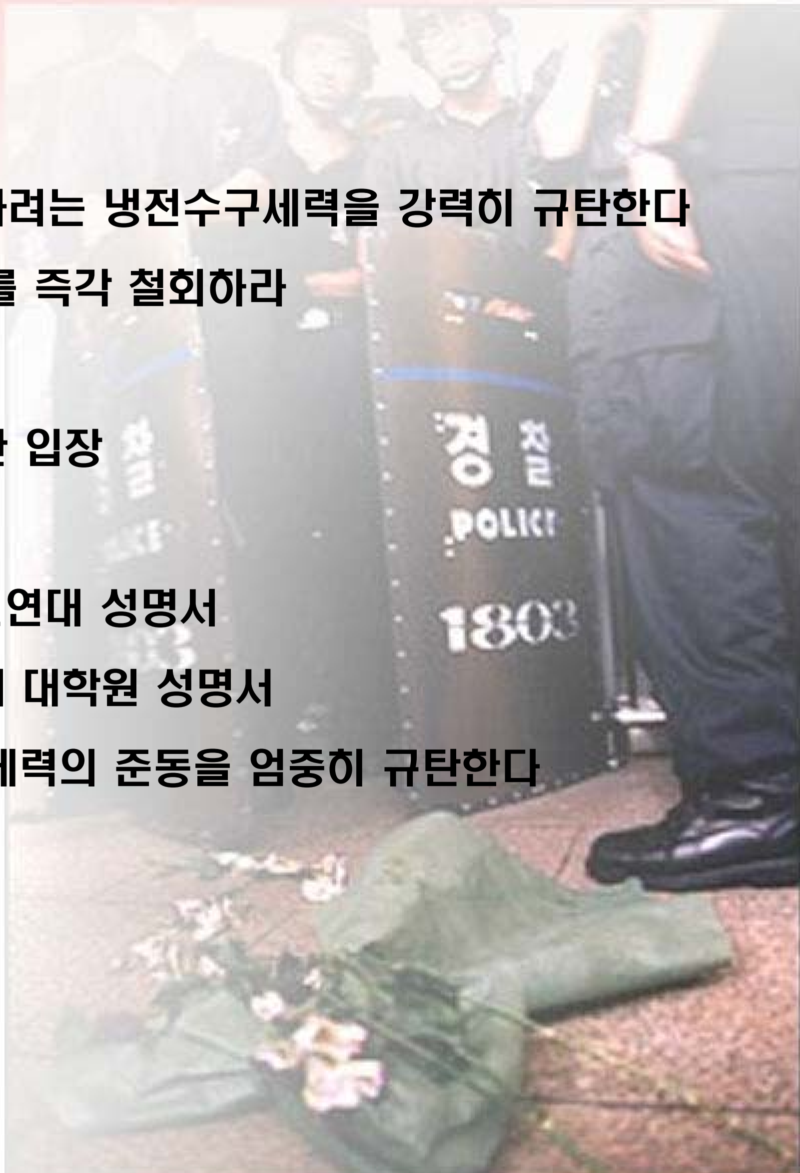
8.15민족통일대축전관련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강정구 교수님 석방을 촉구하는 동국대 대학원 성명서

통일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7인의 방북대표단 구속 규탄 성명서

광주전남 통일연대, 규탄성명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기자회견문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마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는 겨레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룰 것을 목적으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함께 만든 연대기구입니다.

추진본부는 그 동안 서울과 평양, 금강산에서 6.15 선언 실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해외 700여명이 참가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의지를 널리 알린 역사적 행사였습니다.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과를 계승하여 8월 15일 서울과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로 북측과 약속하고, 올해는 우리가 먼저 평양에 가고 내년에는 북측에서 서울로 내려온다는 합의에 따라서 지난 8월 15일 337명의 추진본부 대표단이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추진본부는 ≪평양체류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모든 일들은 우리 대표단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도착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추진본부는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조그만 과실을 크게 나무라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자기성찰과 반성의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본부 대표단이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부의 일탈은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쩌면 누군가 한번은 겪어야 할 부분적인 시행착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행착오에 대한 과도한 반응보다는 그 성과를 기조로 남남대화와 남북교류를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일시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이 만나 6.15 선언의 실천 의지를 서로 확인하였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시키고 확대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축전의 참가는 교류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6.15선언에서 언급되지 못한 평화정착의 문제를 진전시키고, 당국간 회담을 지원하는 민간의 역할을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동전시회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발생한 일부 지엽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칫하면 이런 성과를 실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릴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양행사를 과장 왜곡 보도해온 일부 언론과 이를 정략적으로 문제삼는 정치인들에게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일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지, ≪광란극≫이 아닙니다. 337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평양의 문을 연 사상 처음의 경험, 대표단 내의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의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단의 절대 다수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남측 대표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안고 어렵게 이루어진 방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일부의 시행착오를 전화위복의 교훈으로 삼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언론이 과장 보도를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보도를 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이 같은 태도가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평양행사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남남갈등의 증폭이라고 확대 해석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남남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갖는 ≪생동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언론이 여러 단체들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근거로 상호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함을 직시하고 앞으로 ≪남남대화≫를 더욱 진지하고 폭넓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평양행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과를 이어가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에 맡겨져야 합니다. 정부당국이 사법적인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된 사람들의 다수를 불구속 처리한 정부의 조처를 높게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7명의 사법처리도 신중히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관용의 역량을 키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서 임동원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간의 남북교류가 시행착오를 넘어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임무입니다.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빌미로 해서 장관 퇴진 등의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민족문제를 당리당략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평양에서 발생한 일부의 허물은 그 당사자와 추진본부가 져야할 책임이지 통일부 장관에게 돌아갈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양축전에서 나타난 일부의 시행착오를 과장하여 이를 계속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러한 정당 등에 대해서 7대종단과 추진본부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엄중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추진본부는 국민여러분께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2001. 8. 28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통일연대, 구속철회 촉구대회



2001 통일대축전 평양행사 남측참가단과 관련한 언론과 정부,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범민련, 한총련, 전국연합, 민주노동당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소속 500여명은 오늘 오후 1시께 연세대에서 집회를 열고 ≪방북대표단 사법처리≫를 규탄했다. 당초 종로2가 ≪젊음의 거리≫에서 열기로 한 이날 집회는 경찰의 ≪불허방침≫으로 연세대로 옮겨져 진행됐다.

≪돌출행동은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선동언어다≫

이날 집회에서 방북대표단으로 참가했던 오종렬(전국연합의장)의장은 ≪도대체 무엇이 돌출행동인가?≫라고 반문하며 ≪≪돌출행동≫은 수구언론이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선동언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평양축전은 오랜세월 분단된 남북이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루어낸 소중하고 창조적인 약속이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해할수 있는 방북대표단의 행동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부각시킨 언론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잘못끼워진 단추

또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로 참가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통일헌장탑) 개폐막식 참관 주동혐의로 연행됐다 불구속 처리된 최규엽(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처음 통일헌장탑을 둘러싼 방북 여부가 불거질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며 ≪외교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나아가 ≪무엇보다 김대중 정권의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이 문제다≫며 ≪수구언론의 장단에 따라 춤추면서 무슨 언론을 개혁할 것이냐?≫고 역설했다.

≪방북단 사건은 보수정객들간 이전투구속에서 나온 계산된 과정이다≫

한편, 범민련 민경우 사무처장은 이번 ≪방북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흐름이 단순한 반북이데올로기문제≫가 아니라 ≪보수정객들간의 정권재창출을 둘러싼 이전투구속에서 나온 계산된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민처장은 ≪단순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수구언론이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615선언 자체의 뿌리를 흔들기 위한 노골적이고 치밀한 정략 속에서 나온 보도행태였다≫며

≪이러한 언론의 장단에 맞춰 남북화해협력분위기를 좌·우대결, 사회·자본주의대결이란 물줄기로 바꿔 이후 대선을 승리하려는 보수, 공안세력의 조직적 체계적 공세다≫고 주장했다.

≪수천번 감옥가도 민족대단결 포기할수 없다≫

또 민처장은 ≪이러한 상황속에 범민련이 희생양의 표적이 된 것이다≫며 ≪범민련은 어떤 정치적 탄압이 와도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대단결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반통일 공세 중단 △보수언론 왜곡보도 철회 △방북대표단 구속철회 를 촉구했다.

7대 종단, 기자협회, 민주노총,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한편, 방북단 사법처리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7대 종단, 한국기자협회, 민주노총,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은 지난 24일 한나라당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무리하게 통일부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7대종단은 ≪이번 파문이 남북교류 협력이 확산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하고 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영모)도 오늘(25) 성명을 내고 ≪소수참가자들의 우발적 행위를 침소봉대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민간교류 노력을 압살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정치권, 언론계등에 △관련 구속자 석방 △이념적 선전 철회 및 사회분열 조장에 대한 사과 △균형잡힌 남북문제 보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과정에서 몇몇 일을 문제삼아 비난하고 처벌하려한다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방북 이후 20여년 동안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에 남긴 각종 방명록, 참배사실, 꽃다발 증정, 발언내용, 선물증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형평에 맞게 법을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또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강정구 교수님을 비롯한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학문·사상 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유뉴스
2001-08-25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훼손하려는 냉전수구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이 평양공동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성과는 참으로 지대하다.

무엇보다 분단 56년만에 남과 북의 각계의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공동행사를 치루어냈다고 하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변이 아닐 수 없다.

또 종교계. 여성, 청년학생, 노동 농민 예술계등 각계각층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일일이 말로 거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교류와 단합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수 없다.

그런데 참으로 뜻밖에도 이런 소중한 성과를 안고 돌아온 대표단 중 일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후의 시대적 추세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남북의 단합과 화해, 또 남쪽내부의 통일과 단결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치졸한 행위라 아니할수 없다.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 그리고 몇몇장소에서의 방명록에 나름대로의 소감을 쓰는 것이 남쪽에서 지지를 받을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또 범민련 자체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것인가의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남쪽내부에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다. 남쪽내부의 이런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그동안 분단 56년동안 남북의 교류와 단결의 통로가 막혀있었던 때문이다. 이제 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기운이 터지려고 하는 이때에 남쪽 내부에 존재하는 이런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국가권력의 편파적인 탄압이 가해진다면 앞으로 6.15공동선언은 어떻게 실현하고 민족통일의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오는 거대한 민족화해와 단합의 시대를 역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몇몇 수구 냉전세력의 내년 대선 구도와도 맞물린 치밀한 정치적 술수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이런 세력의 민족분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아가 이런 수구냉전세력의 민족분열 행위에 동요하여 이번 대표단의 일부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현정부의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2001 민족통일대축전 남쪽 참가단의 성과는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남과 북 해외의 공동행사의 의의가 이렇듯 함부로 훼손되고서는 앞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점점 더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남쪽 내부의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민족대화합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6.15공동선언의 한쪽 주체였던 현 정부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가리우고 방북대표단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구냉전세력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이 사법처리 되지 않도록 현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3일 오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사법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 오늘(23일),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하여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 긴급 체포된 남측 대표인사 16명중,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포함해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훼손하고 조국통일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공안당국의 표적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국민과 겨레가 우려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2. 이번 대표단이 합의한 〈남북공동보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몇 달 동안의 남북 관계로 볼 때 당국사이에서 조차 쉽게 이루지 못할 엄청난 성과를 남측대표단이 안고 돌아왔다. 이러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성과는 뒤로한 채, 정쟁다툼에 민심도 등을 돌려버린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언론개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던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 그리고 조국통일을 두려워하고 민족분단을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는 극우 보수세력들이 다시 한번 ≪색깔론≫을 들이대며 국면전환용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처해있는 난국을 타개하고자, 마치 물고기가 먹이를 입질하듯, 남측대표들이 백두산 등지를 방문하며 소감을 적은 방명록이 문제라느니, 또 무엇이 문제라느니, 하며 연이어 딴죽을 걸고 있다. 어떠한 마음을 담아 소감을 썼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극히 추악한 작태이다. 우리는, 일부 언론이 왜곡, 과장 보도하면, 한나라당이 이를 크게 떠들어 다시 확대하고, 공안 당국이 ≪수사 착수≫를 선언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시대착오적 용공조작과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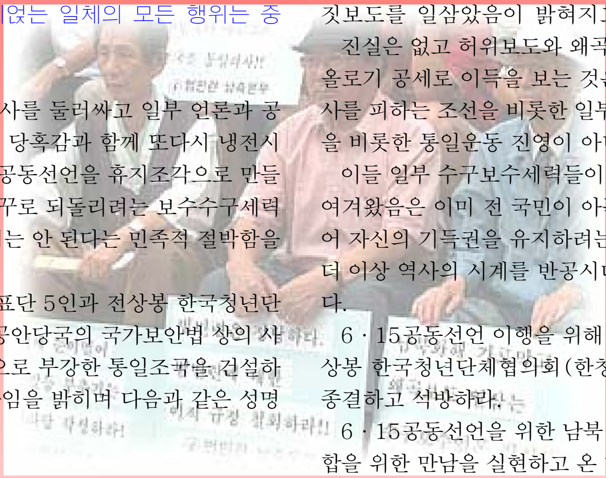
4. 우리는 민족의 약속마저 져버리고 이를 훼손하려 하는 자들을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을 보면서 진실된 역사를 지금껏 왜곡하고 거짓역사를 통해 자신의 명줄을 이어왔던 자들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움트고 있는 조국통일의 싹은 어느 누구도 꺽지 못 할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이러한 악행을 심판하고 말 것이다.

5.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정의로운 길을 국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비록 험난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온 겨레의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갈 것이다. 그 영광되고 찬란한 조국통일의 길에 정견과 종교, 사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누구와도 두 손 맞잡고 함께 나갈 것을 7천만 겨레 앞에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2001년 8월 23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6·15공동선언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일간 8·15평양행사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공안검찰에서 행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당혹감과 함께 또다시 냉전시대 유물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6·15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분단대결시대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보수수구세력의 광기어린 행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방북대표단 5인과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강정구 교수에 대한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상의 사법처리 조치는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는 민족의 통일염원을 짓밟는 처사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서 맺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적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

이번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민간급이 만들어 낸 민족통일운동사의 획기적인 성과이다.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거족적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이었으며, 여성, 경제, 학계,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언론 등 남북 각계 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전 민족이 함께 이행하기 위한 결실을 본 장이었다.

또 남북이 공동으로 민족의 존엄을 위해 일제의 역사왜곡책동과 일제시대 우리 민족에 대한 만행에 대해 일제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행사와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지키기로 하는 등 민간급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 권익을 신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방북대표단이 이루고 돌아온 민족적 합의와 성과는 어떤 이유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과 함께 100%이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족재생의 길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들은 국민 앞에 반성을 촉구한다.

일부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보도행태를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최근 행태는 이미 '언론' 이길 스스로 거부했다고 본다.

일제시대 황국신문이 되자고 나팔수 노릇을 해왔고, 민주화를 짓밟고 군부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을 ≪위대한 장군≫이라 칭송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의 작극의 보도행태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잠재우려는 의도된 조작과 오보경쟁극이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15일 여의도 행사 무대가 3대헌장을 형상화 했다는 오보와 김숙희 YMCA회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양 거짓보도를 일삼았음이 밝혀지고 있다.

진실은 없고 허위보도와 왜곡보도로 점철된 여론조작과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언론개혁의 국민적 지지와 세무조사를 피하는 조선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며, 피해를 보는 것은 범민련을 비롯한 통일운동 진영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7천만 민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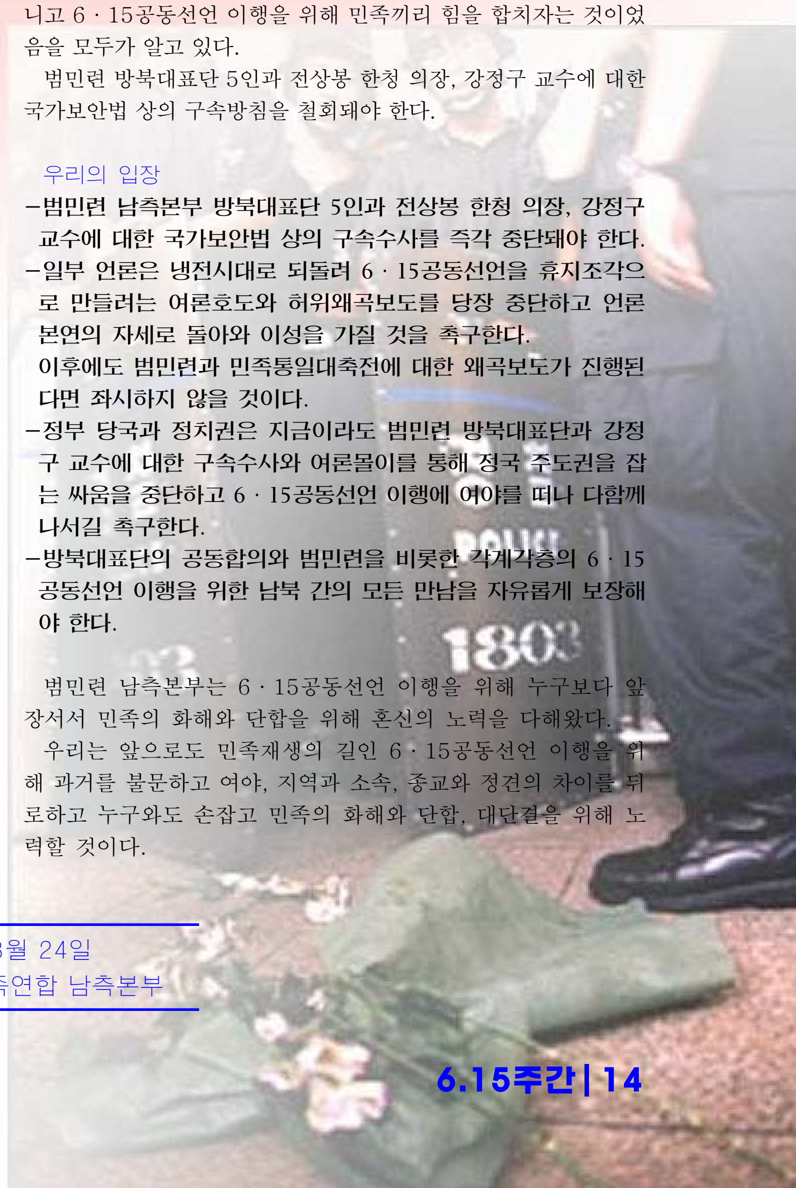
이들 일부 수구보수세력들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탐탁치 않게 여겨왔음은 이미 전 국민이 아는 바이다. 6·15공동선언을 뒤흔들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들은 시대의 대세와 함께 해야지 더 이상 역사의 시계를 반공시대로 되돌리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 방북대표 5인과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석방하라.

6·15공동선언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만남을 실현하고 온 대표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의 선별구속 방침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간급의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만남을 차단하는 것일 뿐이다.

6·15공동선언으로 국민 90% 이상이 국가보안법은 존재 가치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냉전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또다시 꺼내들어 방북단 7명을 구속하려는 것은 냉전시대에나 통하는 것이다. 7명의 방북대표단이 체제전복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범민련 방북대표단 5인과 전상봉 한청 의장,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의 구속방침을 철회돼야 한다.



우리의 입장

- 범민련 남측본부 방북대표단 5인과 전상봉 한청 의장,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의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돼야 한다.
- 일부 언론은 냉전시대로 되돌려 6·15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여론호도와 허위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고 언론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이성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후에도 범민련과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왜곡보도가 진행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범민련 방북대표단과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와 여론몰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 싸움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여야를 떠나 다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 방북대표단의 공동합의와 범민련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모든 만남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재생의 길인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과거를 불문하고 여야, 지역과 소속, 종교와 정견의 차이를 뒤로하고 누구와도 손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1. 8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활동에 대한 입장



1. 민주노총은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방북활동에 대해 수구언론과 정부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 ≪돌출행동≫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노동계를 비롯한 다수가 개.폐막식에 참관한 것은 돌출행동이 아니라 방북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게 꼬인 당시 상황에서 자칫 무산될 상황에 놓인 일주일에 걸친 방북일정과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개.폐막식 참관이라도 했기에 부문별 교류와 남북간 다섯 가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개.폐막식 참관을 돌출행동으로 매도하는 수구언론의 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까지 성과는 공유하려 하면서 개.폐막식 참관은 무책임한 행위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동아일보사의 37년 김일성 부대 보천보 전투기사 금박 원판 선물 증정 사실에서 보듯 현재 언론과 사법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개.폐막식 참관 이외의 이른바 돌출행위는 그 동안 방북했거나 북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인 예의표시나 해프닝으로 흔히 나타난 일입니다. 이번 방북과정에서 몇몇 일을 문제삼아 비난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방북 이후 20여년 동안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에 남긴 각종 방명록, 참배사실, 꽃다발 증정, 발언내용, 선물증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형평에 맞게 법을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2. 우리는 탈세사주 구속에 발끈한 언론사들과 이번 일을 부풀려 정략에 이용하려는 수구세력들이 더 이상 냉전논리로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더 이상 냉전논리로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붉은 칠 하기 식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관습과 의례를 존중해온 남북교류의 관행을 무시하고 방명록 서명, 초청하는 측의 행사 참관 등을 문제삼아 구속, 불구속된 방북인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간교류에 국가정보원 요원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정부가 방북을 묵인하고도 함정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범민련 관계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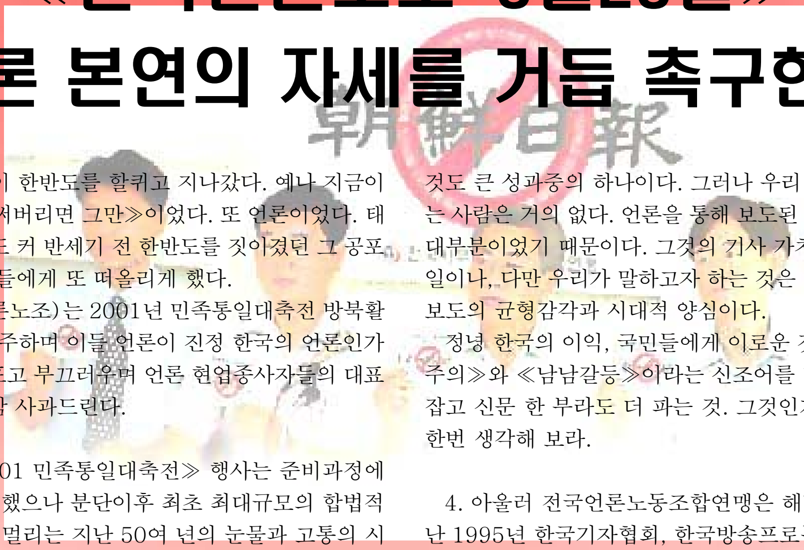
넷째, 민간교류의 성과를 존중하고 장려하며, 통일방안을 공론화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무력북진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수구세력과 언론들이 이성을 잃은 냉전보도와 폭력,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당국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일관되게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남북 세 노동단체의 노동자 교류와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해 더 한층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2001년 8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조-8월28일≫
언론 본연의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1. 다시 광기어린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뱉어버리고 써버리면 그만≫이었다. 또 언론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상처는 너무도 커 반세기 전 한반도를 짓이겼던 그 공포와 전율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떠올리게 했다.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방북활동 관련 언론의 보도를 마주하며 이들 언론이 진정 한국의 언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슬프고 부끄러우며 언론 현업종사자들의 대표단체로써 국민들에게 재삼 사과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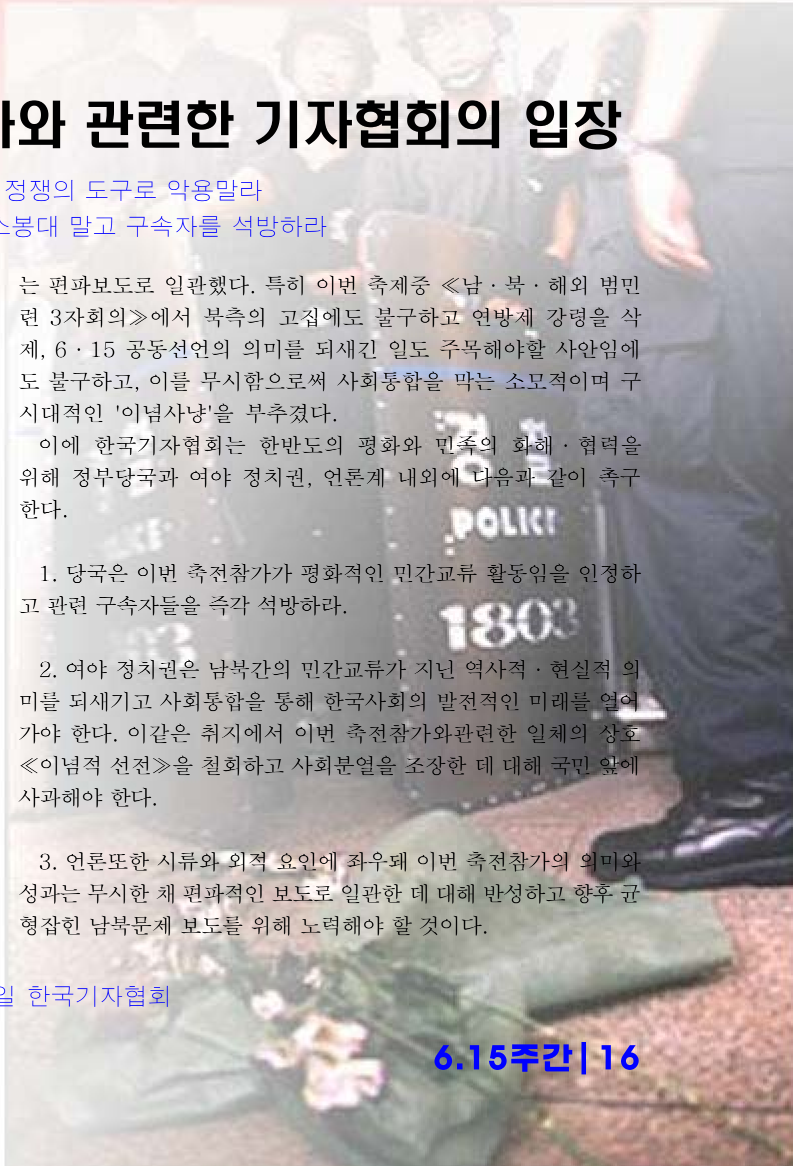
2. 주지하다 시피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는 준비과정에서 소소한 논란을 겪기는 했으나 분단이후 최초 최대규모의 합법적인 민간교류였다. 이것은 멀리는 지난 50여 년의 눈물과 고통의 시간, 가깝게는 10여 년 전 문익환 목사, 황석영 씨 등의 방북으로 인한 아픔 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사적으로도 한반도 분단의 해소는 대세이자 과제가 아닌가.

3. 생각해 보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백두산 삼지연 혁명사적지≫를 방문했을 때 ≪거대한 동상을 세울 돈이 있으면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빵 사주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했다고 한다. 뿐인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해외 범민련 3자 회의에서는 북측이 한사코 반대하는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각 부문별 협의를 갖고 다양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일부 ≪돌출행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기사 가치는 우선 언론사가 판단할 일이나,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 사실 보도의 균형감각과 시대적 양심이다.

정녕 한국의 이익,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인가. ≪안보상업주의≫와 ≪남남갈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대며 국민의 눈길을 잡고 신문 한 부라도 더 파는 것. 그것인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

4. 아울러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은 지난 1995년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와 함께 ≪≪통일언론 실천≫ 언론 3단체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이 선언에서 언론 3단체는 ≪...우리 언론인들이 그 동안 얼마나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 깊이 자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남북언론사 사장들이 만나 양측 언론기관들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 나가자고 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난 세월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관련한 기자협회의 입장

정치권은 대축전 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말라
정부는 민간교류의 성과를 침소봉대 말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한국기자협회는 정부가 ≪2001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자 일부를 구속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민간교류 노력을 압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일부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 이번 평양축전 방문단의 교류 성과 및 방문 취지를 무시한 채 소수 참가자들의 미미한 우발적 행위만을 침소봉대, 일방적으로 ≪친북행위≫로 매도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번 남측대표단의 평양축전 참가는 6·15공동선언 이후 시작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민간교류의 확산을 통해 남북 양쪽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목적의 실현 과정이기도 하다. 반세기 분단현실 속에서 극도로 이질화된 양측이 이같은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의 당위와 과제를 공감하고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 이번 평양축전 참가단을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며 때아닌 ≪이념논쟁≫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획책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이에 편승, 이번 축전 참가가 △분단이후 최초·최대의 민간교류이고 △내년 행사는 남·북 공동행사로 치르기로 했으며 △내년 남측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북측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키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와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해프닝≫에 불과한 일부 참가자들의 ≪돌출행동≫만을 게재하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특히 이번 축제중 ≪남·북·해외 범민련 3자회의≫에서 북측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강령을 삭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긴 일도 주목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막는 소모적이며 구시대적인 '이념사냥'을 부추겼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정부당국과 여야 정치권, 언론계 내외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당국은 이번 축전참가가 평화적인 민간교류 활동임을 인정하고 관련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여야 정치권은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지닌 역사적·현실적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통합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같은 취지에서 이번 축전참가와관련한 일체의 상호 ≪이념적 선전≫을 철회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3. 언론또한 시류와 외적 요인에 좌우돼 이번 축전참가의 의미와 성과는 무시한 채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한 데 대해 반성하고 향후 균형잡힌 남북문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1년 8월25일 한국기자협회

8.15민족통일대축전관련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는 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이 극단적인 냉전수구논리와 사실왜곡, 여론호도를 통해8.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해 시비비하하고, 이의 결과로 일부 방북단이 구속되고,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가 퇴색되며, 이남사회에서 반북대결이 고취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사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먼저 대전충남 통일연대는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이야 말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과북해외 동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을 위해 만들어논 역사적인 민족회합과 단합의 장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당면하여 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냉전수구세력이 사실왜곡과 추측성 기사를 통해 여론을 반북대결적으로 호도하고, 8.15통일대축전을 ≪평양광란극≫이니 뭐니 하며 시비비하 하여, 방북단을 사법처리케 한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회창, 조선일보등 냉전수구세력은 역사적인 8.15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기 전에서부터, 기간, 이후 까지 8.15통일대축전 개최장소와 방북단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시비걸더니 극기야 기자회견이니, 대변인 성명이니, 신문 1면 기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전민족의 6.15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 중앙일보등 냉전수구세력은 행사참가 전부터 3대헌장 기념탑 참가가 북의 대남적화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될수있다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시비걸고, 온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언더니, 행사참여로 간 방북단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트집을 잡고, 극기야 방명록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여론조장을 하더니 방북단 전체를 좌경용공세력화(22일 이회창 기자회견문 자료 ≪좌경용공세력을 보호하는 세력이 있다≫)하고 8.15통일대축전을 평양광란극(22일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으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조선과 중앙일보는 이러한 냉전수구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사실확인도 안된 것을 추측기사화 하여(조선,중앙 23일자 1면기사 ≪방북단 묘향산에서 김일성 인형 앞 큰절≫) 여론호도에 광분하며,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시비비하하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 하고 국민여론을 반북대결에로 고취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대단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회창등 냉전수구세력의 논리대로 과거 냉전의 대결적 사고에 집착하여 남북어느 일방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일을 하려 한다면, 통일은 이루어 질수도 없고 남북대결만이 고취될 것이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현재 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 중앙일보등 냉전수구세력이 벌이는 행동을 그대로 두고는 6.15공동선언 실현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은 과거 냉전의 대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생각한다.

대통령병에 눈멀어 민족도 양심도 없이 오직 집권에만 혈안이 된 이회창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민족불화의 씨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조선일보등 냉전수구세력이자 대변지인 족벌언론도 더 이상 사실왜곡, 공상소설같은 추측성 기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한 일방자로써 김대중 정권 역시 6.15공동선언과는 공존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방북단을 구속한 것은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얘기하며, 실제로는 6.15공동선언 정신을 역행한 반통일적 행위이다. 김대중 정권은 하루속히 구속된 7명의 방북단을 석방하고, 반통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이었던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이어 21세기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더욱 힘있게 이행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지역의 각계각층의 힘을 모으고,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역사적 성과와 당면 냉전수구세력의 반통일적 반북대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대전, 충남 시도민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25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2001/08/27 (18:35)

강정구 교수님 석방을 촉구하는 동국대 대학원 성명서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심한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아 구속되신 강정구 교수님은 평생을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자 사표이셨다. 강정구 교수님은 연행되시기 전에 본인이 작성한 해명서를 통해 ≪만경대 정신≫이라는 표현은 결코 김주석 가문이나 주체사상을 찬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셨다. 교수님은 ≪만경대 정신≫이란 민족을 위해 희생되거나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명예와 보상을 내림으로써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추동하여 민족정기를 세우는 정신이라고 해명하셨다. 그리고 북한에는 ≪만경대 정신≫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위의 정의는 평소 학문적 분석 속에서 자리잡고 있었으나, 만경대를 방문하고 순간적이고 직관적인 발상으로 연결되어 방명록에 표출된 것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본인의 분명한 해명과 평소 학문적 분석 하에 표현된 교수님의 방명록 서명을 가지고 선생님을 구속한 정부의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56년 만에 남과 북이 하나되어 해방 56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고,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8 · 15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이 열렸다. 이는 1948년 4월 김구 · 김규식 선생 등이 조국의 분단을 막고자 당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이래 최대 규모의 민족통일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행사 참여의 문제를 두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한 내 제 단체의 방북을 허가한 정부의 용단에서 우리는 통일의 희망을 보는 듯 하였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민족 간 대결과 반목이 사라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역사의 도도한 강물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기대였을까? 아니면 너무 순진한 착각이었나?

이번 사태는 지난해 6 · 15 공동선언 이후 통일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시점에서 아직도 냉전수구세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통일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철학을 가지고 통일의 행로를 닦아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며 냉전세력의 눈치만을 살피다가는 민족통일의 시대에 큰 과오를 범하고 말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강정구 교수님을 비롯한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학문 ·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침소봉대 · 왜곡보도가 민족의 이름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사실보도만을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강정구 교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교수님의 석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평생을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해오신 강정구 교수님을 즉각 석방하라!
2. 학문 ·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3. 침소봉대 · 왜곡보도를 일삼는 보수 언론은 즉각 반성하고, 민족의 이름 앞에 사죄하라!

제17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통일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역사적인 남, 북, 해외의 만남! 815 민족공동행사가 끝나고 불어닥친 보수우익세력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어떨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였다.

1000여명의 우리 동포, 형제들이 만나 조국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6. 15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통일에 이바지 할 것을 힘차게 다짐한 세새기 첫 광복절의 민족공동행사를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평가 절하하고 연공에서 반공으로! 통일에서 반통일로! 화해와 단합에서 대결과 불신으로 되돌리려 획책하고 있다.

이회창으로 비롯한 한나라당을 위시한 그들의 언론선전 부대 조선일보는 민족공동행사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색깔 논쟁을 펼치며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는 명확하다.

이것은 6. 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보수와 진보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전국민적 차원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환영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민족공동행사에서 있었던 빌미를 계기로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 하여 자신들의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거대 야당의 잇점과 이회창 대세론을 더욱 확증하려고 하는듯이 정부와 모든 통일애국세력들을 싸잡아 색깔론을 펼치며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통일의 흐름에 커다란 제동을 걸어 다시 예전의 대결구도로 되돌리기 위함인것이다.

현재 그들은 우익보수단체들을 적극 발동하여 크고 작은 집회등을 상정하여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려 눈이 씨뻘겋도록 움직이고 있으며 민중들의 언론개혁의 지향과 요구! 그리고 김대중정부 차원의 언론개혁의 바람으로 한때 주춤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이들과 편승하여 7천만 겨레의 자랑찬 성과와 긍지를 그 시작부터 퇴색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회창을 비롯한 수구보수반통일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이땅의 진정한 통일도, 민주도, 자주도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7천만 겨레의 하나됨의 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했던 815 민족공동행사! 그리고 각 지역축전!

조국통일의 주체 역량은 하루하루 다르게 축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이미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력군이라 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남북해외의 연대조직 건설에서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여성, 언론인, 예술인등등 민족이란 단어를 가장 최선두에 두고 6. 15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를 가슴에 새기며 통일로 진군하려는 각계각층들의 노도와도 같은 물결은 저들이 아무리 언론을 위시로해 확대왜곡을 자행하고 색깔론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친다 하더라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행위밖에 되지 않음을 똑똑히 인식시켜 줄 것이다.

김대중정부에게도 엄숙히 당부하는 바이다.

보수우익의 준동에 편에서 서서 갈팡질팡 하지 말고 확고히 민족의 편에 서서 6. 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의 책임있는 당사자 답게 소신있게 행동할 것을 말이다.

역사가 검증해 주듯이 민족의 편에 서서 행보하는 자는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그 흐름에 역행하는 자는 어김없이 도도한 민중들의 심판에 직면했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현시기 통일의 광폭한 물줄기를 손바닥으로 막아보려는 반통일수구보수세력들의 준동을 민족의 편에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6. 15 공동선언 기치아래 전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단결은 승리의 보검이며 우리에겐 단결의 기치! 공동선언이 있다. 저마다 공동선언 기치 가슴에 새기고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낱낱이 까발리며 민중속으로 들어가자!

충청총련 15만 청춘은 지역에서부터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 반통일수구보수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며 6. 15 남북공동선언의 순결성에 한치의 때도 묻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





8 · 15 방북대표단에 대한 탄압 및 사법 처리 규탄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 성명서

거족적 2001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 대표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왠말이냐?
7인의 8 · 15 방북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조국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발걸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지난 2000년도 남과 북의 정상이 50년 넘는 분단의 장벽을 넘어 뜨거운 심장으로 얼싸안았던 북 정상회담, 그 날의 감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일하자는 남과 북의 조국통일에 대한 약속은 역사적인 6 · 15 공동선언으로 7천만 민족 앞에 선사되었다.
7천만 민족의 조국통일에 대한 약속, 조국통일의 대헌장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열린 민족공동의 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을 향한 행보에 거대한 진전을 이룩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측대표단들은 다음과 같이 남과 북의 통일의지를 실천적 과제로 합의함으로써 다가올 조국통일을 위한 당면 천과제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둘째,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것. 셋째, 내년 민족통일대축전에는 북녘 형제들이 서울에 방문 할것. 넷째, 각계 각층 민간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것. 다섯째,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민족적 공조를 든든히 구축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들이 평양에서 진행되는 통일대축전 개 · 폐막제 참가 여부와 이른바 ≪만경대 방명록사건≫ 등의 논란으로 국내 수구 보수 언론의 일부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면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이후 방북 대표단을 입국 일에 김포공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남측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한 대오를 경찰이 원천봉쇄로 막아나서고, 재향군인회를 위시한 보수 우익단체들은 환영단을 향해 계란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입에 담을 수없는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그에 발맞추어 국내 일부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은 사법처리를 강행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한 친북 좌경세력이라는 빨갱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몰아붙이면서 최악의 발악을 하였다. 우리는 묻고 싶다. 민족적 양심과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과 실천 앞에, 진정 한나라당과 국내 일부 수구보수 언론은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라고..
여기에 우리는 오늘 23일, 어제(22일)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측 대표단 16명 중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포함한 범민련 대표 5명과 한청 대표 전상봉 의장, 강정구 교수 등 7명에 대한 구속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 이는 통일의 대헌장 6.15공동선언에 대한 철저한 훼손이며, 조국통일에 대한 7천만 민족과 국민의 행보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측 대표단은 지난 몇 달간 정체되어 있었던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위대한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이러한 민족적 쾌거 앞에 여전히 시대착오적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이를 비호하고 직접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공안당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리당락의 이해와 다툼으로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조선일보를 위시한 일부 보수 언론들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왜곡 보도, 색깔론 여론 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공안당국은 조국 통일에 대한 민족적 대의와 염원을 무시한 채 방북대표단들에 대한 구속 탄압을 즉각 철회하라.
전진하는 역사는 한번도 자신의 당리당락만을 위해 흑색 선전과 왜곡, 음해를 자행하는 세력들에게 한번도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그들은 언제나 역사와 민족 앞에 자신의 과오를 심판 받아 왔다. 이승만 정권이 그러했고, 희대의 학살자 전두환 · 노태우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조국통일의 시대적 과업을 거스르면서까지 방북대표단에 대한 탄압과 흑색 선전을 자행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 사법처리 강행한 공안당국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것이다.
조국통일을 향한 7천만 겨레의 거대한 행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에 직면한 현실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반통일 세력들의 어떠한 방해 책동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구속 대표들을 구출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조국통일의 대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진정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지혜롭고 의로운 국민은 어떠한 난관이 조성되더라도 조국통일의 실천적 의지를 꺽지 않을 것이며, 분단 반세기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길에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1. 8. 23.
불패의 그 이름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양경수)

광주전남 통일연대, 규탄성명

8·15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방북 대표단 연행, 구속에 대한 광주전남통일연대의 입장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분단 56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민족통일대축전 남북 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사스런 민족화해와 통일의 한마당이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종교, 여성, 언론, 청년, 노동, 농민, 문학 등 각 부문간에 폭넓은 대화를 통해 민간단체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너무나 숭고하고 귀중한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5개항에 이르는 남북 공동 보도문을 통해 일제의 만행과 역사왜곡책동을 폭로, 규탄하고 앞으로 독도영유권을 지켜나가는데 남북민간단체들이 공동행동을 강화하자는 다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 민족통일대축전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서울 행사에는 북녘의 대표단이 참가 한다는데도 합의를 하는 등 민간교류의 새 장을 열어 통일의 물꼬를 튼 일대 사변적인 빛나는 성과를 가져온 행사였다.

그런데 이렇듯 커다란 민족적 성과는 뒤로한 채 소위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개, 폐막식 참관≫과 ≪만경대 방명록 서명≫ 이라는 지극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일을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려 우리의 방북대표단 16명을 불법연행, 7명을구속하여 이번 행사에 흠집을 내고 이를통해 민족분단에 기생하여 자신의 명줄을 연장해보려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반통일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보라....

50년 넘게 적대와 대결의 분단의식속에 살아온 남과 북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런저런 갈등과 시비가 왜 없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민족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에서 갈등과 어려움은 서로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며 이번 평양행사에서 있었던 문제도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에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면 더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작 비난받고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은 이런 문제를 빌미로 마치 때를 만난 듯 날뛰면서 민족통일의 열기에 녹슨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며 찬물을 끼얹으려는 친미수구공안세력의 반통일적인 작태인 것이다.

이에 통일을 열망하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8·15민족통일대축전 정당하다, 방북대표단 구속수사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방북대표단이 3대헌장탑에서 열린 개,폐막식에 참가형태가 아닌 참관형식으로 행사장에 갔다왔다는 것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상태며, 만경대 방명록 서명문제도 만경대를 방문하여 방문지와 통일을 연관시켜 순수한 목적으로 별 뜻 없이 작성한것 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범민련의 범민족회의는 열리지도 않았으며 각 부문간 대화시간에 범민련대표끼리 간단히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며 이를 통해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정부 스스로 이적단체라 규정하는 범민련 지도부의 방북을 정부가 허용해 놓고 이제와서 회합,통신이니 잠입,탈출이니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없이 불법연행, 구속한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임동규 의장과 박중화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의 방북대표단 7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 6·15공동선언 파탄내는 조국통일의 최대 걸림돌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다시한번 얼마나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악법인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작년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방북대표단이 참관한 것은 용인되고 그보다 훨씬 자유스러운 민간통일행사에 참관한 것은 처벌되어야하는 국가보안법이 법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히려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일을 지향하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처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이 이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기생하는 친미수구공안 반통일세력이 존재하는한 민족화해도 조국통일도 요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떨쳐 나설것을 다짐하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3. 조국통일에 역행하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통일세력 즉각 몰아내자.

우리는 6·15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상과 정견, 정파의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실현의길에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함께 가기위해 수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확대, 왜곡보도하며 남남간의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미수구언론과 이 기회를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압박해 들어가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 방북단 사법처리를 통해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워보려고 날뛰는 한나라당, 그리고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죄≫까지 서슴치 않고 저지르면서 온 나라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공안기관 그리고 이 장단에 놀아나 분별없이 춤추고 있는 인사 등은 절대 한 하늘아래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의 반통일세력임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이단자들을 몰아내는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설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4. 6·15공동선언 실현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6·15공동선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조국의 살길을 제시해준 조국통일의 이정표다.이 선언은 결코 퇴보되어서도 안되고 한시도 지체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김대중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실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수구공안보수세력의 농간에 놀아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으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을 좌초시키려 하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방북대표단에 대한 사법처리로 몰아가려는 김대중정부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6·15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려는 그 어느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들고 우리민족을 우리의 힘으로 통일하는데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우리민족이 통일로 가는 역사적 흐름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몇 해 안에 다가올 민족통일의 역사에 자신이 어떤 존재로 쓰여질 것인지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방북대표단 7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6·15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 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8월 24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통일연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과 체류에 대한 상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러시아연방대통령 웨.웨.푸틴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2001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하시고 6일과 7일 싼크트 페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하시었다.

러시아연방대통령 웨.웨.푸틴각하는 위대하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온갖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으며 러시아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대통령 웨.웨.푸틴각하와 두차례의 뜨거운 상봉을 하시고 회담을 하시었으며 대통령전권대표들과 주장관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지도일군들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었다.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서로의 성과와 경험이 통보되고 조러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국제정세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진지하게 교환되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두 나라의 영도자들은 깊은 역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러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러친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염원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평양에서 조인된 조러공동선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푸틴대통령은 고대하던 김정일동지의 러시아연방방문이 새 세기의 첫해에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의 호상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러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연대성이 표시되었다.

두 나라 영도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특히 조선반도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과 러시아철도연결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당면한 협조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보았다.

두 나라 영도자들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새 세기에 쌍방의 공동노력으로 세계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웨.웨.푸틴대통령은 모스크바체류를 끝내시는 김정일동지와 또다시 비공식상봉을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웨.웨.푸틴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상봉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조러친선의 유대를 일층 강화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공식방문을 마치시고 6일과 7일 영웅도시 싼크트 페쩨르부르그시를 비공식방문하시었다.

김정일동지를 서북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웨.웨.체르케쏘브, 싼크크 페쩨르부르그시장 웨.아.야코블레브, 레닌그라드군관구 사령관 웨.에스.보브리쉐브, 부시장 겸 대외연계위원회 위원장 게.이.트카체브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일군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웨.아.야코블레브시장을 비롯한 시의 지도일군들을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고 시장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피스카료브묘지의 ≪어머니－조국≫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으며 에르미타쥬박물관과 페뜨로빠블롭스크요새를 비롯한 역사유적들, 레닌그라드금속공장과 끼로브공장 등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진행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싼크트 페쩨르부르그시를 참관하시고 러시아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훌륭히 고수하고 빛내이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리인스키극장에서 발레극 ≪씰피다≫를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공식방문과 싼크트 페쩨르부르그비공식방문을 위하여 오가시는 길에 러시아의 여러 지방들에 체류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의 전 영토를 통과하시는 전 기간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까.베.풀리꼽스키를 비롯한 러시아연방 대통령행정부와 외무성의 지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스크바로 가시던 길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러시아의 중요공업도시의 하나인 옴스크시에 체류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를 역에서 시베리연방구주재 대통령 전권대표 엘.웨.드라첩스키, 옴스크주행정장관 엘.까.폴레쟈예브, 옴스크주 립법회의 의장 웨.아.와르납스키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옴스크주행정장관을 위시한 주와 시의 지도일군들의 동행하에 탱크를 비롯한 현대적인 트랙터를 생산하는 옴스크운수기계제작공장과 농업종합체 ≪옴스끼 베콘≫, 푸시킨명칭옴스크국립과학도서관을 참관하시었으며 주행정장관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고 주예술인들이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11일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체류하시었다.

1984년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였던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보씨비르스크시민들은 각별한 친근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시베리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엘.웨.드라첩스키,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키, 주대의원의회 의장 웨.웨.레오노브, 노보씨비르스크시장 웨.에프.고로제쯔키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노보씨비르스크시에 있는 러시아과학원 시베리분원,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연합체, 시베리국립철도종합대학을 참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줌으로써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금은 여러가지 최신식비행기들을 설계제작하고 있는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연합체를 돌아보신 다음 비행시위를 관람하시고 비행시위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어 축하해 주시였다.

이날 저녁 노보씨비르스크주행정장관 웨.아.똘로꼰스키는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었다.

8월 15일 광복 56돌을 맞으며 푸틴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체류중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축전을 보내어 왔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7일 원동연방구의 소재지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시었다.

하바롭스크변강과 시의 지도일군들, 하바롭스크시민들은 조러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고 귀국하시는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그이께서는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다음 향토박물관과 노병회관, 어린이식품종합공장, 백화점을 참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변강의 지도일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무르강을 유람하시면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연회에 초대되시었다.

러시아 체류기간 전 쏘련원수 데.데.야조브, 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 웨.웨.크류츠코브, 러시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제.우말라토바, 전 쏘련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웨.웨.카르포브를 비롯한 개별인사들이 김정일동지를 찾아 뵙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었으며 장군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러시아방문과 체류는 러시아연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대통령의 관심과 환대, 러시아인민의 열렬한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었으며 국경을 넘으면서 러시아연방대통령 웨.웨.푸틴각하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여 전문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러시아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은 전통적인 조러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러친선의 연대기위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2호)

오늘 한국에서 이회창이 자주민주통일 대세에 역행하는 최대원흉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는 한편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이야말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희대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분자로서 6.15공동선언실현에 가장 큰 우환단지, 악질종양이다.

지난 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조국반도의 정세는 민족자주, 평화지향, 민족단합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일심단결하여 자주통일의 한길로 전진하여 왔다.

그런데 천하역적 김영삼의 뒤를 이어 반통일분자들의 수괴로 등장한 이회창은 자신의 추악한 매국파쇼적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은 우선 이 땅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핵전쟁으로 민족멸살도 서슴지 않을 가장 악질적인 전쟁미치광이이다.

이회창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는가 하면 온세계가 반대배격하는 미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결국 조국반도의 정세를 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전쟁으로 충동질하고 있다.

이회창은 과거 전쟁미치광이 김영삼의 최측근 졸개시절부터 미제의 호전정책의 철저한 하수인노릇을 하며 조국반도의 정세를 전쟁직전으로까지 몰고 갔던 호전광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미국독점자본을 비롯한 국제독점자본의 경제신탁통치로 전락시키며 4천만 민중을 인간생지옥에 몰라넣은 악질적인 친미사대역적이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일제시기 수많은 애국자들을 처형시킨 친일검사보 이형구의 아들인 이회창은 일본총리의 야스구스신사참배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한일관계발전에 저해를 준다≫고 지껄여대는 천하의 친일매국노이다.

이회창은 또한 이 땅을 민주주의의 불모지, 민중말살의 동토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극악한 파쇼분자이다.

이회창은 이미 25살의 나이에 박정희군사깡패의 일급심복이 되어 역사상 최대 언론학살극인 ≪민족일보≫조용수사장학살사건의 주범판사노릇을 한 놈으로서 이후에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처형시킨 희대의 파쇼교형리이다.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내외의 한결같은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며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을 뇌까리는 파쇼분자도, 경제신탁통치 하의 벼랑끝에서 사활적인 생존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모독하며 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을 부추기는 민중학살자도, 반통일모략지 ≪조선일보≫를 찬양하며 언론개혁운동을 방해하는 반동정치배도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특히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며 조국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며 온갖 망동을 서슴지 않는 수괴급 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보고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망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놀부심보로 딴지를 걸며 온갖 망언, 망동만 일삼은 악질 반통일분자이다.

6.15공동선언이라는 민족자주선언에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들이대며 이 땅을 미제의 영구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것부터 해서 민족대단결에 대해서는 ≪주적론≫,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론≫을 지껄이며 결국 제2의 6.25전쟁을 획책하는 반통일호전광이 바로 이회창이다.

올해 80억달러의 미국무기구매에 앞장선 매국노가 이회창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놈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도 안되는 통일투자를 ≪퍼주기론≫으로 비방하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뒷골목 장사군에게서나 통용되는 ≪상호주의론≫따위를 떠들어대니 이회창이야말로 악질적인 궤변의 능수, 희대의 반통일모략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세계가 박수를 보내며 감격적으로 지켜본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순간 텔레비전을 끄고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를 치는 놈, 국민을 우롱하는 유치한 ≪지하철쇼≫, ≪시장방문쇼≫로 여론조작놀음에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연일 부추기는 놈, 청렴을 염불처럼 되뇌이지만 부정착복한 재산으로 국내외에 엄청난 부동산을 사모으는 놈도 바로 너절한 정치모리배인 인간말종 이회창이다.

결국 이회창이야말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으며 민족공멸의 화를 끌어들이려는 우환단지, 대권을 선사받는 댓가로 민족을 미일외세의 노예로 만들려하는 천하매국노, 이 땅을 민주주의의 암흑세계로 회귀시키려고 발광하는 파쇼분자, 온갖 망발과 협잡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사기꾼으로서 즉각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역적 중의 역적이 아닐 수 없다.

선행파쇼독재자들도 무색케할 권력욕에 피눈이 되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조국반도의 정세를 대결국면, 전쟁국면으로 몰고가는 이회창을 처단하는 정의의 투쟁에 전민족, 전민중의 분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하기에 지금 민중 속에서는 이회창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6.15공동선언으로 모처럼 마련된 통일정국이 파탄되고 결국에 가서는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패거리들의 소굴인 한나라당 내의 고위층 중에서조차 이회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돌아서는일이 생기는가 하면 집권야욕에 눈이 먼 이회창은 정계에서 퇴진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60여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조건에서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비롯한 애국적인 대중단체들이 반이회창투쟁을 반조선일보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대대적으로 전개할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애국적인 대중조직들이 대중투쟁의 선행공정인 대국민선전활동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하며 이회창의 지난 반역행적과 매국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폭로함에 따라 반이회창여론이 민중 속에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꿈꾸며 미일상전의 특등사냥개, 국내 반통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 오만가지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은 대중의 뭇매를 맞으며 처형되어야 마땅하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제의 조종아래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며 자주민주통일대세에 역행하는 천하의 민족반역자, 파쇼광, 반통일호전분자 이회창에 대한 정치적 처단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진행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민중의 반이회창투쟁은 이회창이 정치권에서 매장되고 이 땅에서 축출될 때까지 줄기차게 전개될 것이다.

이회창은 반드시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2일
서울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3호)

최근 조선일보 사주가 천문학적 탈세비리로 구속수감되었는데 사실 그 비리라는 것은 조선일보가 수십년간 저질러온 매국반동행각과 부정부패행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이 기회에 매국모략지인 조선일보의 모든 죄행이 낱낱이 폭로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된다.

그런데 오늘 만인이 일치하게 조선일보를 친미반북의 매국반동모략지로 규탄하는 와중에 유독 이회창과 그 패거리들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이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 정당한 세무비리수사를 ≪표현의 자유 유린≫이라며 황당한 궤변을 지껄여대고 있다. 이 단적인 사례만으로도 희대의 모략지 조선일보와 천하의 사대매국역적 이회창패당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확연해진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일보는 일제시기 친일역적질로 일관하고 해방이후에는 친미매국질로 성장하며 역대 사대매국 위정자들의 어용나팔수 노릇을 해온 특급 매국반동지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북을 음해하며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조국반도에 전쟁국면을 끊임없이 야기시킨 전대미문의 반통일모략지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파쇼독재를 미화분식하는데 일등공신이었던 대표적 파쇼매문지이기도 하다.

이회창이란 놈은 대권을 위해서라면 민족을 팔아먹고 민중을 배반하며 전쟁도 불사할 천하역적으로서 선행 사대매국역적들을 찜쪄먹을 극악한 반민족역적, 파쇼광,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대세에 역행하며 온갖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괴급 반통일분자이다.

현하 국면은 반민족, 반민중, 반통일세력으로서 완전히 본질이 일치하는 조선일보와 이회창패당은 대북강경정책을 추진중인 미 부시정권의 적극적인 조종하에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로, 이회창패당은 조선일보의 정치조직으로 결탁하여 6.15공동선언의 파탄과 반통일세력의 권력창출을 위해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정권은 통일대세에 역행하며 반북모략책동에 피눈이 되어 광분하고 있는 이회창패당, 조선일보와 같은 반통일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자체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회창패당과 그 기관지인 조선일보는 사주의 구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에도 미부시정권의 배후조종하에 6.15공동선언 파탄책동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자행할 것이며 이는 결국 김대중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파탄과 정권창출에 광분하는 이회창패당, 조선일보와의 가능하지도 않는 타협이 아니라 반이회창, 반조선일보 투쟁을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애국운동대오와 공조하며 함께 투쟁하는 길뿐이다.

현정권은 이번 사주구속을 계기로 조선일보의 지난 반민족, 반민중, 반통일적 매국반동모략행각을 남김없이 폭로단죄하는 한편 애국운동대오와 적극 공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해체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운동, 민주화운동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완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방북대표구속은 친미예속성의 발로

8.15방북대표 구속사건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보도 4호)

공안당국이 8월 23일 평양 8.15민족통일축전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방북대표 16인을 연행하고 그 중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김규철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6인을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잠입탈출 조항 등을 걸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이번 구속사건의 본질은 김대중정권이 여전히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반북모략책동에 부화뇌동하며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대헌장인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친미예속성, 반민중성의 발로인 것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의 대표단 참관이라는 것도 사실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신이 그대로 6.15공동선언에 내포되어 있는 조건에서 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범민련 간부들이 이북과 사전에 논의하고 이북에서 범민족대회 의장단회의를 하였다는 것도 조국통일의 대표적인 3자연대체로서의 정당한 활동일 뿐 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강정구교수의 방명록문제라는 것도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돌 행사에 참여한 것에 비추어볼 때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는 이번 방북대표의 방북활동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을 고리로 분주탕을 떠는 것은 김대중정권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에 부화뇌동하면서 6.15공동선언의 근간을 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권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같은 민족과 진심으로 단합하지 못하는 김대중정권이 이회창,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반통일세력들의 반북광란극, 마녀사냥극에 휘둘리는 것은 필연인 것이다.

우리는 현하 정세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미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과 이회창,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을 철저히 분쇄하며 반민족,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한 6.15공동선언은 한갖 휴지장으로 전락하며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김대중정권은 지금처럼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 내외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에 동요하며 사대적으로, 반통일적으로 나온다면, 당장 방북대표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것은 전민족의 준엄한 심판과 파국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평양축전공동보도문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 제의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남조선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북과 남,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성대하게 진행한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의의 있는 사변이였으며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날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북과 남의 여러 단체들사이에 호상 리해를 두터이하고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한 력사적인 대회합이였다.

이번 축전기간 민화협을 포함한 남측 대표들은 북측의 로동자,농민,청년학생,녀성,종교인,경제인,문화인 등 각계층과 상봉 및 련대모임들을 가지고 공화국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으며 공동행사들도 진행하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갈데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이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간급 접촉과 대화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이 ≪친북≫이니,≪리적≫이니 하는 부당한 딱지를 붙이며 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것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평양축전의 성과를 깎아 내리고 날로 높아 가는 통일기운을 누잦히며 북남대결을 저들의 정쟁에 유리하게 리용하려는 추악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평양축전의 성과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런 자들의 란동에 침을 뱉고 한결같이 단죄규탄해 나서고 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한줌도 못되는 보수세력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6.15공동선언은 리행되여 나갈것이며 통일로 향한 겨레의 힘찬 진군은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대축전기간에 진행된 여러 단체들의 상봉과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리행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당면하게 이번 축전기간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제반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해당 단체들사이의 실무협의를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가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인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회에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사이에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토의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의가 남조선의 각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남북 청년학생 공동 합의문



새세기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평양에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성사시켰다.

남측 대표단은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북측의 노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학생, 여성, 경제인, 문화인 등 각계층과의 연대모임을 가졌다.

청년학생들은 ≪새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를 남,북,해외 전체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난 6월 15일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이후 또 한번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교류를 성사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뜻깊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마치며 남과북의 청년학생들은 이번 대축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청년학생 대표들은 온 겨레의 지지와 성원속에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확인된 민간교류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10월 20일경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단 정부의 승인여부, 금강산 배편 사용여부 등 명확한 성사여부를 최소한 개최 한달 전에 북측에 전달한다.

2. 성사가 확정되면 대회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10월초,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3. 규모는 남북 각각 500명의 대표단과 100여명의 참관단, 문예단, 기자단으로 구성한다.

4. 대회의 내용은 1차와 2차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강산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한다.

2001년 8월 20일 평양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청년학생추진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학생위원회, 범청학련북측본부, 민화협



≪결산 인터뷰≫ 김종수 ≪가장 큰 성과는 인간적인 신뢰≫

미공개 3개항 촉구해 접촉 약속 받아내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를 동행 취재했던 ≪월간 말≫, ≪민족21≫, ≪자주민보≫, ≪참여사회≫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주간 ≪시민의신문≫, ≪기자협회보≫등 8개 대안매체 기자들은 남측 대표단 단장을 맡았던 김종수 단장(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신부)을 공동으로 인터뷰하기로 하고 평양에서 돌아온지 3일째에 그를 만났다.

김종수 신부는 ≪6.15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이 단계 밖에는 오지 못한 우리의 수준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시 : 2001년 8월 23일 오후 4시
장소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담 : 김치관 기자(통일뉴스) 박영률 기자(월간 말)
사진 : 권우성 기자(시민의신문)
정리 : 박영률 기자

□ 이번 8.15 공동행사를 이끄신 남측 대표단 단장으로서 소회는.



■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통일운동에 몸바쳐오고 고초를 당했다. 6.15 선언이후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통일논의가 공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어떤 분들은 이번 행사로 남남갈등의 폭이 더 증폭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증폭됐다기 보다는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속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지, 이런 갈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본다면 앞선 법이 있더라도 새로운 규범이나 법령이 반포되면 낡은 법은 폐지되는데 앞에서 힘들게 이룬 새로운 도약들이 전혀 힘을 발휘 못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 일부 남측대표단의 참관이 문제가 되었는데.

■ 서울을 떠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발적인 상황도 있었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남측의 반응이 언론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적 영향을 받았는지, 예상보다 너무 강했다. 일반국민들의 정서도 그동안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 당일 상황은 지도부로서도 불가항력이었나.

■ 그랬다. 불가항력이었다.

□ 일부 참가자들은 참관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는데.

■ 명동성당에서 있은 방북교육에서도 일체 그 앞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공표했다. 이미 방북교육을 받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방북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안받은 사람이건 모두 모이게 한 후 분명히 이야기했다. 각서 쓴 사실과, 각 연대 대표들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모두 전했다. 통일연대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래도 몰랐다는 사람들은 두가지 경우에 해당될 거다. 방북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아 당시 급하게 진행된 방북교육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문보도에 참관이라는 수정제의가 있었다는 게 알려졌고, 조건부 방북승인했다는 점이 보도되었기에 참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왔다는 경우도 있다. 그 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 통일만을 위해 살았다는 분들이 평양에서 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겠나. 통일연대만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통일은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또한 북측도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남측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화해야 양쪽이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정부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진통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처음부터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의 행사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 북측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남쪽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라. 양식있는 남측의 한 사람이 편견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의 시각은 남측의 한 일반인의 시각이다. 8.15 끝내고 바로 통일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통일논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그 장소에서 해서 통일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보다 다른 장소에서 원만하게 성사시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북측이 3대헌장 기념탑을 고수한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나.



■ 북은 지금 ≪김일성 주석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 세기는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아래 통일의 길을 열어나간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3대헌장기념탑은 북측에서 새로운 시도를 열어가는 그런 곳이다. 이런 행사에 남과북, 해외가 모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로는 사실 이 행사는 남측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북체제의 총화를 이루기 위한 내부용의 성격이 더 강했다. 행사도중에서도 남측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 내부용이라는 근거는.

■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북이 어떤 주의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걸 남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러니까 내부용이라는 거다. 나름대로 자기 인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거다. 그 요구를 채워주고 그 체제와 공존하면서 만나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남측 일각에서 있지만 그것도 수용하기 힘든 게 지금 남측의 현실 아닌가.

□ 언론의 보도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 동행취재하던 기자분들도 자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반영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사실만 전달했다 할지라도 남쪽에서 기사를 평가하고 편집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언론이 진정 정도를 걷는다면 돌출적이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다 보도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다른 사실들을 은폐하는 것은 비겁하다.

□ 이번 행사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말해달라.

■ 부문별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들이 이뤄지고 합의되고 그대로 진행되면서 실천의 길로 가게되면 그 자체로서 큰 성과 아닌가. 북측 사람들이 내년 대회에 서울로 오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했는데 내년 8.15면 금방이다.

그리고 발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한가위 때도 이산가족들이 선물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고 촉구했고, 서울과 삼지연 직항로를 열어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북측 체제에서는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김 위원장 서울답방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3개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구 부처를 통해 남측과 접촉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6.15 선언에는 1, 2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 1, 2항은 3, 4항의 지속적인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4항을 거듭 실천해 나갈 때 1, 2항도 관철된다라는 점을 북측의 고위층에도 강조했다. 그런 부분도 성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공동합의문을 꼭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 우리가 각자 정한 목표를 이루려고만 상대를 만나니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명분과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돌이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신뢰다. 이러한 신뢰를 쌓은 것을 가장 큰 의의로 생각한다.

□ 통일운동 내부의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 차이를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통일연대도 ≪추진본부가 결정하고 우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는 식은 곤란하다. 앞으로는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논의구조 내에 들어오는 것 보다 각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도 특색있는 다양한 방북 방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북이 여전히 남측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그 부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측사람들에 대해서 남측의 사고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급하게 해나가려 하는 방법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거창하게 수십수백개 단체가 한꺼번에 이런 식이 아니라 각 부분별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도 그런 애기를 했고, 우리도 같은 애기를 했다.

이제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이런 구호, 통일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논의도 구호만 외치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통일뉴스 2001-08-24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미국과 한국호전집단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칠천만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끝내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이번 군사훈련은 ≪북침작전계획 5027-98≫실행을 위해 미국과 한국호전분자들이 계획적으로 강행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용납못할 도발책동이며 6.15공동선언에 대한 참을수 없는 배신행위이고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과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인류양심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오늘 우리 칠천만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 진보적인류는 6.15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호전집단은 이에 배치되게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해 나섬으로써 저들의 침략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한미호전집단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으로 평화와 안정,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드높던 이땅에는 또다시 남북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조국을 분열시키고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가 고조될때마다 한국호전집단을 부추겨 북침전쟁연습과 악랄한 반북대결소동을 일으켜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겨레의 드높은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극히 모험적인 군사행위에 매달리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한국호전광들이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게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정책에 적극 합세해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편승해온 한국호전집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0여척의 함선과 잠수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등을 발동해 동해상에서 입체적인 하계해상기동훈련을 벌인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한미합동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미연합방위태세공고화니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니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과 그 하수인인 한국호전집단의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우리 민족과 민중에 대한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6.15공동선언말살행위로 낙인찍고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화해와 대결, 평화와 전쟁은 절대로 양립될수 없다.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은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전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나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일치한 통일염원과 견결한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이땅에서 전쟁군사장비들과 함께 주한미군을 지체없이 철수해야한다.

현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실천의지를 명백히 밝혀야하며 대세의 흐름과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멸살을 겨냥한 미국의 침략적 북침전쟁소동에 합세하지 말아야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 것이다.

주체90 (2001)년 8월 24일
서울



주한미군측이 한강에 독극물을 대량무단 방류한 범인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이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한미당국은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방류해 기소된 미군용산기지 영안실 당시 부소장 맥칼랜드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에 양보할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당국은 22일 맥칼랜드에 대한 공소장접수를 거부한뒤 맥칼랜드의 범행이 근무중에 일어난 만큼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1차적인 재판권은 미국에 있는데다 한국법무부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을 한국법정에 출석시킬수 없다고 당치않은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은 오만무례한 미군당국의 파렴치한 책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절대 묵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이 지난해 2월 용산미군부대안에 있는 영안실에서 시신방부처리용으로 쓰는 ≪포름알데히드≫와 ≪레탄올혼합용액≫ 220리터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사실이 미군부대용역노동자에 의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 등으로 쓰이는 약품으로 일정액 이상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극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측은 이러한 독극물을 아무런 처리과정없이 하수구로 무단방류해 그것이 식수로 이용되는 한강에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녹색연합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이 크게 분격하면서 ****과 범인을 한국법에 따라 재판처형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지난 3월 범인인 맥칼랜드를 기소하고 그를 한국법정에서 재판처형하기 위해 넘겨줄 것을 주한미군당국에 정식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당국은 맥칼랜드의 범행이 근무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1차적인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데다 한국법무부가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법정에 출석시킬수 없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당국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만을 더욱 높여줄 뿐입니다.

지금 미군측이 휘둘러대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으로 말하면 미군의 한국강점과 우리 민중에 대한 미국의 만행을 합법화하고 살인자들과 기타 범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침략적인 협정인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주한미군당국이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에서 이른바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미군의 범죄는 저들이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비근무중에 감행된 미군범죄에 대해서만 1차적 관할권을 한국측이 가지도록 했으나 그것마저도 미군의 요청에 따라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측이 모든 재판권을 행사하게 규정해놨습니다.



또한 미군이 감행한 범죄행위가 공무집행중이였는가 비공무집행중이였는가하는 기준은 미군당국이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런 한미행정협정의 불공평한 조항들을 내걸며 미군당국이 이번에 또다시 범인을 넘겨주려하지 않을뿐 아니라 서울지방법원에 보내는 공소장마저 적들이 거부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불공평하고 치욕스러운 한미행정협정을 당장 파기하며 반세기 이상이나 이땅을 불법강점하고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들을 모두 되찾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당국은 부당한 구실을 붙이지 말고 범인을 무조건 한국측에 넘겨야하며 내외민중의 일치한 요구대로 모든 병력과 장비들을 걷어가지고 이땅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다그마 훈련장을 폐쇄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얼마전 파주의 장파리와 자장리 주민들은 미군의 탱크를 가로막는 투쟁이 있었다.

미군의 한국 주둔 이후 수많은 주민들의 주한 미군의 횡포에 시달리고 생존권 마저 위협당해 온 것이 한국의 현주소이다. 파주의 다그마 훈련장 문제 또한 새 천년에 들어선 지금에도 주한 미군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그마 훈련장은 주한 미2사단의 기갑부대 훈련장으로 73년 국방부가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징발해 170만평이 공여됐으며 이 가운데 70여만평 만이 실제 훈련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련장은 장파리와 자장리 마을을 지나가는 2개의 도로를 들어가게 되어있다.

98년 이후 마을 입구까지 탱크가 오가는 바람에 주민들은 미군탱크의 소음 때문에 집에 금이 가고 잠을 제대로 못자는 실정이다. 근처 축산농가에서는 젖소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방염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높고 우유 생산량도 크게 줄어드는 등 재산피해가 막대하다.

작년 추수 뒤에 미군 탱크들은 말리기 위해 길가에 널어놓은 벼를 짓밟는가 하면 올해 6월에는 미군탱크가 4천평이 되는 귀리밭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지나갔는데 미군은 이 귀리밭 주인이 탱크가 들어오지 말도록 앞에서 가로막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인륜적인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88년에는 6살난 어린이가 탱크에 치여 목숨을 잃은 일까지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군 측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용하지 않는 땅을 돌려주도록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대답은 이 사건을 어물쩡 넘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땅을 돌려준다고 확답하는 것도 아니며 돌려준다 해도 지금의 훈련연습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은 다그마 훈련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파주의 다그마 훈련장 사건은 또 하나의 매향리요, 또 하나의 용산기지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53년의 미군주둔의 역사에서 갖은 만행을 당해오면서 주한미군이 점령군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새천년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주한미군은 통일로 가는 길에 걸림돌 일 수 밖에 없다.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충청총련 15만 청춘은 파주 다그마 훈련장 폐쇄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주한 미군 철수하는 그날 까지 투쟁할 것이다.

파주 다그마 훈련장 폐쇄하라!
주한 미군 물러가라!



2001 년 8월 26일
8기 충청지역 총학생회 연합



평양축전참가 남측대표들을 비방하는 ≪한나라당≫ 규탄

조평통 대변인 성명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들이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에 대해 악의에 찬 비방을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온 겨레의 뜨거운 축복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는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뜻 깊은 민족적대회합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분단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해외의 각계층 단체인사들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하게 진행한 이번 평양통일대축전은 그 성과로 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의의 있는 축전으로 내외의 절대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일부에서는 이번 축전의 력사적의의를 심히 외곡하고 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을 그 무슨 ≪죄인≫으로 몰면서 당치 않은 ≪돌출행위≫란것을 꾸며 가지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 지고 있다.

당초부터 이번 축전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을 두고 그 누구의 ≪선전공세≫에 ≪리용≫당하는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중상모독해 오던 ≪한나라당≫의 극우보수파들은 평양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과반수가 ≪친북파≫로 ≪추정≫된다느니 축전에 참가하는것 자체가 ≪리적행위≫라느니 하고 떠들어 대면서 반통일 소동을 벌렸다.

그들의 이 악의에 찬 행패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될수 없는 반통일적범죄행위이다.

지금 온 겨레는 이번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북녘동포들의 열광적이며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돌아 간 남측축전대표들을 범죄시하면서 박해하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 벌린 남측대표들의 활동으로 말하면 통일애국으로 일관된 장거로서 그것이 온 민족의 아낌 없는 찬양과 환영을 받고 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우익세력들이 ≪친북≫이요,≪돌출성≫이요 하고 악의에 차서 걸고 들면서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는것은 달아 오른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 대결의 상태로 몰아 가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행동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개폐막행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북측의 행사로써 남측대표들은 다만 참관인으로 와서 보았을뿐이다.

지난해 10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경축행사에 남조선의 여러 정당,각계인사들이 참관인으로 참가하였던 전례를 놓고 보아도 이번 축전개폐막식을 남측대표들이 참관한것은 조금도 문제될것이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떠드는대로 ≪참관≫조차 문제로 된다면 도대체 사상과 제도가 다른 북남사이에 공동행사는 물론 서로 래왕할 수도 없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에 그들이 평양축전의 의의를 외곡하고 남측대표들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것은 이를 계기로 6.15북남공동선언을 날려 보내고 조선반도정세를 다시 북남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며 그 무슨 내부적인 정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추악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다시 대결시대로 되돌아 가게 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한나라당≫패들안에서 올해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에 대해 악의에 찬 비방을 하는것은 스스로 통일문제에 관여할 명분을 부정하는것으로 되고 그들자체가 북남관계를 론의할 대상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될뿐이다.

국토가 량단된 우리 나라 실정에서 어느 정당이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을 외면한다면 그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온 민족은 자주,단결,통일에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수우익세력들은 저들의 분별 없는 망동으로 하여 빚어 지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바로 처신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나라와 민족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반통일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소동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서 통일애국운동에 나선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통일애국인사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모든 남측 대표들과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련대련합하여 소수 반통일세력의 분렬주의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대축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이회창이 평양통일대축전방문단의 통일활동을 걸고든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회창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양통일대축전방문단의 활동에 대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느니하면서 악의에 차서 시비질해 나섰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언행은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공적 진행으로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각계민중의 민족의 화해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떻게하나 남북관계를 대결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언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새 세기의 첫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많은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참가해 통일문제를 논하는 역사적인 대회합이였습니다. 여기에 남측대표단이 대표자격으로 참가해 통일활동을 벌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전장소문제를 놓고 시비질하며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이 걸고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으로 말하면 말그대로 통일을 위한 탑이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탑이 아닙니다.

또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말하면 남북이 확인하고 확약한 7.4남북성명과 6.15공동선언정신의 이념적 기초로 되고 있는 통일헌장으로써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통일대축제를 온 민족이 공감하고 있는 통일헌장기념탑앞에서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태여 이회창의 시비를 가른다면 남측대표들은 그 무슨 장소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으로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자는 이 하나의 일념을 안고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했을 따름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적단합을 위해서도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방북단의 통일활동을 시비질하며 탄압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회창패당이 만경대방명록과 백두산참관록문제를 걸고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남, 북, 해외는 물론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만경대나 백두산을 참관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자기들의 격동된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명소나 기념관같은 곳에 참관하고 그 감상을 적어넣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물며 세계적 위인으로 칭송받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인상이 깃들어있는 만경대와 백두산 고향집을 참관하고 받은 커다란 충격을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로부터 지난시기 이북을 방문했던 이남의 정객들과 여러 인사들, 기업인들까지도 만경대와 백두산을 참관하고 위대한 주석님과 영도자님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이 유독 이번 8.15평양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만경대방문록과 백두산 참관록만을 문제시해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남북화해와 통일운동의 앞장에선 이들을 빌미로 삼아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는 간악한 저의의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6.15공동선언도 순조롭게 이행될수 없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대화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민중은 이회창패당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하며 반이회창투쟁공세로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회창패당은 저들의 반통일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이회창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 강정명씨의 글-



지금 경향각지 우리 민중들속에서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 반민중적인 역적 이회창반대투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럼 이시간에는 먼저 ≪반이회창투쟁과 노동대중의 과제≫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일보시는 강정명씨의 글입니다.

지금 이회창의 반노동자적행위가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회창일당은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회불순세력의 준동, 집단이기, 시민안정침해, 폭력으로 매도하면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회창일당의 이같은 반노동자적행위에 분노한 노동자들속에서는 반이회창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루다 헤아릴수없이 비참하다. 미국이 몰아온 3년간에 걸친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로 인해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지금 이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들과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사회의 고난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이고 있는 것이 이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생존권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기힘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일당은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면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강요에 따른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부추기고 있다. 현실은 이회창일당이야말로 가장 극악한 반노동자적 친미파쇼매국집단이며 이회창을 그대로 두어두면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은 더욱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우리 노동대중에게 있어서 이회창의 존재는 백해무익하며 이자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나선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결연히 일어나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고 물러설래야 물러설수도 없는 노동대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죽음에로 몰아가려는 이회창일당의 반노동자적행위를 투쟁으로 단호히 저지분쇄해야 한다.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다.

노동대중은 87년 7, 8월노동자대투쟁과 97년 1, 2월총파업투쟁, 한보사태진상규명투쟁 등에서 발휘한 그 기계와 용맹을 되살려 거족적인 반이회창투쟁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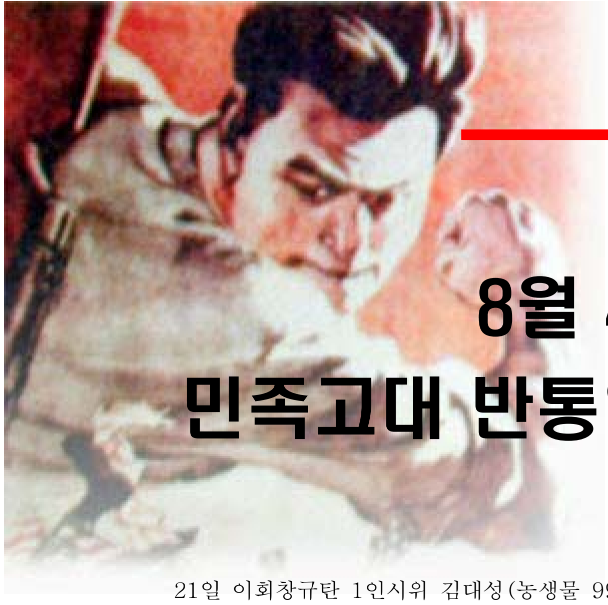
노동운동가들과 민주노조는 반이회창투쟁의 당위성을 광범위한 노동대중속에 알려주어 그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경향각지의 모든 지역 사업장들에서는 이미 지펴든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와 조선일보반대운동의 불길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집시켜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노조들간의 연대공동투쟁을 실현하는 것이다. 노동운동가들과 민주노조들은 오늘의 반이회창투쟁에서 업체와 업종간, 부문간, 지역간에 굳게 연대해서 산별, 기업별 전국적결집도를 높여 1,300만 노동자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단결과 투쟁의 길로 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반이회창투쟁은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투쟁으로써 노동자의 적, 국민의 적을 징벌하는 투쟁이다. 노동대중은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들과 굳게 연대해서 반이회창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범국민적투쟁으로 고조시켜나가야 한다. 더욱이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민개혁국민행동운동이 이미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한데 따라 이 투쟁에 적극 합세해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노동자적 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노동대중과 민중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한국민중의 운명을 양어깨에 걸머지고 시련의 언덕을 넘고 넘으며 자랑스런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노동대중은 변혁운동의 앞장에서 반이회창투쟁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노동자가 주인된 자주의 새 세상, 민주의 새 낙원, 통일의 새 조국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네, 신문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일보시는 강정명씨의 글이었는데요. 반노동자적인 이회창역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6.15남북공동선언도 이행될수 없는 거고 또다시 6.25전쟁과 참극이 터져 우리 민중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게 될겁니다. 때문에 근로민중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적인 역적 이회창을 제때에 단호히 제거해 버려야 할겁니다.



8월 4주 1인시위 총화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21일 이회창규탄 1인시위 김대성(농생물 99)

지난 21일 김윤후(00)형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이회창 규탄 1인시위를 3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평양통일축전 방북대표단이 돌아오는 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구 경비계소속의 의경들이 사복차림으로
당사 앞에 서있었구요.
김윤후 학형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주동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보과 소속으로 보이는 형사가 와서 이리저리 연락도 하고... 어떤 의경은 가가이 다가가서 피켓을 보며 웃음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권에 혈안되어, 보수세력끌어당기려는 모습을 보이며, 공동선언이후 통일분위기에 어떻게는 딴지걸며 반통일 분위기 자아내려하는 이회창의 모습이 불쌍하게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힘찬 투쟁으로 이회창을 단죄규탄하고, 어서빨리 통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23일 한나라당 1인시위를 다녀와서. 박노연(식량자원 00)

한나라당 앞에 이회창 규탄 1인 시위를 다녀왔습니다.
혼자 다녀와서 엄청 두렵기도 했지만 이회창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피켓을 몸에 걸고 한 20분쯤 후에 일일 겁니다.
이회창이 당원들과 점심을 먹고 오는 길인지 한나라당 앞에서 제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회창은 한마디 말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분명 보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회창은 벌써 두려워진것입니다. 겨우 1인 시위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은 언론에 알려지는게 싫어서겠지요.
앞으로도 이회창 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일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민족
고대

tongilsesang@com.ne.kr
tongilsesang.com.ne.kr

8/27 강정구교수 석방대책위 결성!

강정구 교수 석방대책위 발기인 대회 및 결성식이 8월 27일(월) 오후 4시 향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 교수 석방대책위는 만경대 방명록 문제로 지난 8월 24일 구속된 강정구 교수의 조속한 석방과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결성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는데 우선 강정구 교수의 사모님이신 노재열 교수, 홍근수 목사, 임기란 민가협 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장, 진관 스님,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 범민련남측본부의 강순정 및 김영옥 선생님, 이해동 목사,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민족정기수호협의회의 이수갑 의장과 유환일 선생님, ≪강정구교우 석방 향린교회 대책위≫의 강영옥 상임대표를 비롯한 이상근 · 홍대극 · 임태환 선생님, 동국대의 동료 교수이신 김태준 교수와 임호일 교수, 강정구 선생님의 후배이신 김귀옥 경남대 교수,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국민연대의 김병권 선생님, 민화련의 이준우 공동의장과 조병환 · 류양원 선생님, 천정련의 박순희 대표, 전국빈민연합의 김흥현 의장, 6월 광장의 김학규 선생님, 베트남전진실위원회의 김숙경 선생님, 김승국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장, 최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박순경 박사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대책위 구성의 산파역을 맡은 홍근수 목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대표로 노재열 선생님께서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와 함께 강정구 교수의 석방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경과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민교협과 학단협 차원에서 이미 대책위가 구성 중이며 향린교회에서도 대책위가 구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대책위에는 각계의 많은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임기란 민가협 회장께서 결성 취지문을 힘차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를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공동의장과 고문을 선출하였습니다.

우선 공동대표로는 홍근수 목사, 김진균 교수, 김윤자 교수, 김태준 교수,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서경원 평통사 공동대표, 김애영 한신대 교수, 문규현 신부, 진관 스님, 임호일 교수, 김흥현 전노련 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상일 교수, 박순희 천정연 대표 등 17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고문으로는 신창균 선생님,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 박순경 박사, 박정기 유가협 회장, 임기란 민가협 회장, 이종린 범남본 의장, 이수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의장, 홍창의 향린교회 장로, 박정희기념관건립 반대국민연대 선생님, 문정현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강영옥 향린교회 장로 등 모두 11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위해 박기학 자통협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의 간사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 대한 여론 조작과 왜곡을 바로잡는 대국민 여론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정연의 박순희 대표는 관성에 빠지지 말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자고 호소하면서 이번 사안은 전체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의 부당성을 전국민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국민의 왜곡된 인식을 씻어내는 실천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가협의 임기란 회장님은 서울 구치소 양심수들이 이번 당국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보고와 함께 검찰 항의방문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박순경 박사는 언론이 돌출행동으로 몰아가는데 절대 돌출행동이 아니다면서 이같은 여론조작에 힘있게 대응하자고 연설하여 힘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신문 기고, 홍보, 신문광고, 서명운동, 탄원서, 소식지 발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강정구 교수님이 석방될 때까지 동국관 앞에서 8월 29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것과 30일(목) 민교협, 학단협, 한국산업사회학회 공동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결성식이 끝나고 홍근수 목사님 방에서 공동대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상임공동대표와 상임 고문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홍근수, 김태준, 오종렬, 문규현, 진관 등 5분과 손장래, 박순경, 이종린, 이수갑, 강영옥 등 5분이 각각 상임공동대표와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책임간사로는 박기학 위원장, 총무로는 김귀옥 교수, 부간사로는 동국대 김진환 학생이 수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공동대표 및 고문은 5만원씩 내기로 하였으며 가족이 100만원을 내주셨습니다.

결성식 뒤로도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이은진 경남대 교수가 대책위에 참여하였으며 유럽에서도 양해동 선생님 외 2분이 대책위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강정구교수 석방 대책위

[성명]

조선일보등 수구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민중들의 통일열망을 꺽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강력 규탄한다.

1.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반통일적 국론분열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통일대축전 추진본부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통일부 장관이 조건부 방북 결정 사실을 범민련을 통해 알리도록 해, 정부가 범민련을 공식창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방북단은 물론 민족통일대축전 남측행사에서 왜곡보도를 통해 매도하려 하고 있다.

15일 통일대축전 행사중 신촌에서의 마무리 집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선 모형을 3대 헌장 기념탑을 모형화한 것이라며 매도하여 대중적으로 벌어진 통일행사를 불순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나라당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북대표단의 북측에서의 교류를 ≪평양광란극≫ ≪친북광란극≫ 등으로 호도하는가 하면 이적용공단체 범민련이 통일부의 남북간 연락창구로 활약 했다는 중앙일보의 왜곡된 보도를 인용하여 거짓을 확대포장하였다.

4.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수구보수언론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대표단의 행보와 관련해서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보도에는 관심없이 방북단을 비하하기 위해 심지어는 왜곡보도까지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건강한 보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면서 실상은 분단으로 인해 유지해왔던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민중들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5. 민중연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계속 국론분열을 일삼고 통일을 가로막아 나선다면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과 제 민중진영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구보수 반통일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덧붙여 범민련 간부 및 강정구교수를 즉각 석방하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8일

민족자주 ·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준)



9월부터 더욱 강력하게 조선일보 거부운동 펼칠 것

민주노총,

노정 간 대결을 부추기고 반통일적 보도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거부투쟁을 보다 강화시켜나가기로....

민주노총의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이 한층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8월25일 발표한 ≪싸움 붙이고 흥정 말리는 조선일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조선일보가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투쟁을 부추기는 악의에 찬 보도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8.15 평양통일축전과 관련해서도 냉전논리로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조선일보 거부 투쟁을 더욱 더 힘차게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그 동안 진행한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9월부터는 매주 하루씩 조선일보 앞 규탄 집회를 계속하는 등 조선일보 응징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8.25 성명서≫ 전문이다.

싸움 붙이고 흥정 말리는 조선일보

– 노정대화 방해하고 정면대결 부추기는 보도 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

1. 민주노총은 들끓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에도 아랑곳 않고 반성은 커녕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투쟁을 부추기는 악의에 찬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또 평양통일축전과 관련해 냉전논리로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보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그 동안 진행한 구독거부 부수를 공개하고 9월부터 다시 조선일보에 대한 강력한 응징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조선일보는 8월24일자로 ≪민노총 단병호 위원장 경찰출두 청와대와 '막후교섭' 있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6, 7월 총파업으로 수세에 몰리자 김승훈 신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 정부의 선처방침을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현 정부가 정규라인 대신 비정규라인을 이용하고 해결도 원칙보다는 정치적 타결로 이뤄내는 국정 운영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 총리가 나서서 불법파업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밀실논의를 통해 약속을 해주는 2중 플레이도 구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이미 8월2일 명동성당 농성 마무리 회견에서 발표했고 대다수 언론이 다뤘던 내용을 조선일보가 굳이 이제 와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 자료를 비밀스런 '내부문건'인 양 인용하면서 재탕하듯 다시 보도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형식으로는 국정 운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으나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에 대해 왜 강경하게 탄압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봐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29일 단위원장이 검거망을 따돌리고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했을 때도 마치 경찰이 단위원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는다는 듯이 '경찰 단병호 위원장 안 잡나 못 잡나'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6.12 연대파업 때 '이 가뭄에 웬 연대파업이냐'로 시작해 '파업 주동자 엄벌에 처하라'로 끝냈던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노동계에 대한 강경탄압을 주문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모두가 아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정책을 펴며 빈부격차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사회갈등이 커지고 노동계도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이유 있는 저항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바로 잡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올 들어서만 190명, 국민정부 출범 3년 8개월 동안 629명을 구속하며 강경탄압하자 노정대결은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무책임한 선동으로 이 강경탄압을 부추겨온 것도 모자라, 모처럼 노정 간 대화가 비공식으로라도 이뤄지자 이를 문제삼아 강경탄압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노동현장을 휘 젓는 살인용역 깡패를 동원한 사용주의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오직 노동계에 대한 강경탄압만을 일관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5. 조선일보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번 8.15 방북 보도에서 보듯 계층간 대화와 화해 뿐 아니라 민족간 화해와 교류도 막아서며 남한 사회의 특권층에 의한 영구지배,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과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는 듯 낡고 녹슨 냉전논리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조선일보 거부 투쟁을 더욱 더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그 동안 진행한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9월부터 매주 하루씩 조선일보 앞 규탄집회를 계속하는 등 조선일보 응징투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 아울러 우리는 정부당국이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세력의 준동에 밀려 대화와 타협의 결과를 모른 체 하거나 또 다시 노동계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노정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01/08/26

ⓒ 2001 OhmyNews

이회창을 규탄하는 노동대중의 목소리



지금 노동자, 농민들속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장명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적극 동조하면서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세계에서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당치않게도 이북의 군사적위협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북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이회창을 그대로 놔두면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수 없고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전쟁까지 터질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를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전쟁의 참화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면 이회창을 당장 정계에서 들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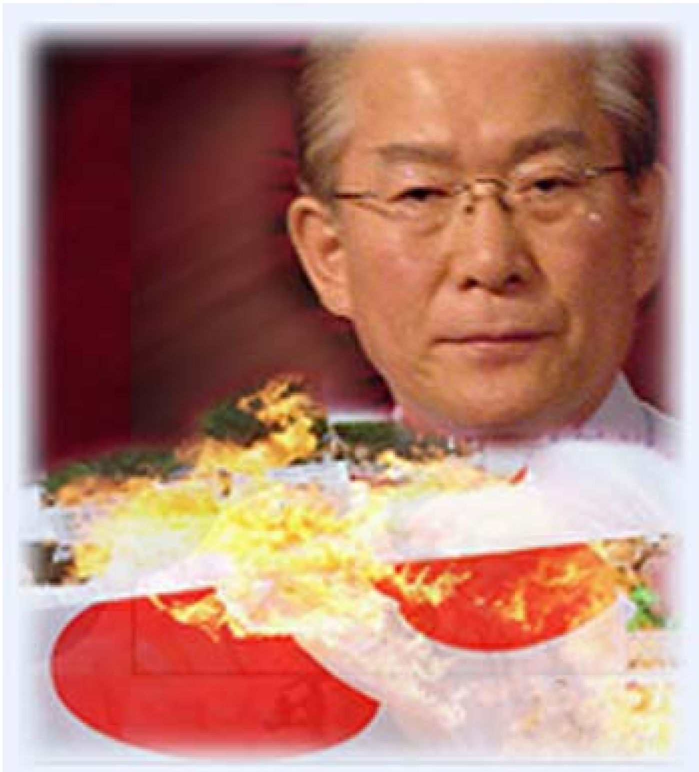
대우차노동자 김철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말로는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하는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공권력을 노동자탄압에로 부추기고 있다. 지난 6월 이회창의 한나라당은 생존권사수를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가뭄에 파업이란 무슨 말인가, 이런때 파업을 하는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들의 생존권요구투쟁을 적극 반대해 나섰다. 그들의 이같은 처사는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회창은 한나라당이 우리 노동자들을 모독한데 관해 사죄하고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자들은 무쇠주먹으로 박살낼 것이다.≫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광호씨는 이제는 이회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집안망신은 **이 시킨다고 했다. 이씨문중의 ***는 이회창, 그가 정치를 할때마다 이씨왕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통령꿈을 꾼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속에 권력욕과 치부욕, 심술이 가득하고 역적질만 하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잘될것이 없다. 그런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만난듯이 우쭐해서 돌아치는 이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이회창은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의 초보적인 자격이 없다. 전주이씨를 욕되게 하는 이회창을 문중족보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네, 미친개를 그냥 놔두면 사람이 피해를 입게되죠. 반통일에 미쳐서 온갖 못된짓을 다하면서 돌아치는 이회창을 그냥 놔두면 우리 민족은 큰 참화를 당하게 됩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하듯이 이회창도 정계에서 단호히 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반이회창투쟁에서 지성인들의 자세

재야언론인 김영식씨의 글



지금 이땅에서는 이회창일당에 대한 민중의 원한과 분노가 발화점을 찾아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반이회창기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것은 이회창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책동에서 비롯된 필연적 귀결이다.

이회창은 이른바 ≪검증론≫, ≪상호주의≫, ≪북한퍼주기≫를 떠벌이며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면서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영구주둔≫과 ≪국가보안법사수≫를 주장하며 이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민주의 동토지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이회창을 둬둔다면 6.15공동선언은 관철될수 없고 우리 민족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현실은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매장하는 투쟁이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지성인들은 현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정의와 진리의 홰불을 치켜들고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지성인들은 진리의 전파자이고 정의의 옹호자이며 애국의 선도자이다. 지성인들은 정의에 목소리로 이회창역도가 겨레와 민족앞에 저지른 온갖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만천하에 고발단죄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이회창 애비의 친일행적을 비롯해서 역적가문의 뿌리깊은 반민족적죄악상을 까밝혀놓아야 한다. 이와함께 이회창역도가 법관의 모자를 쓰고 군부파쇼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자행한 반민주적범죄행위들을 폭로단죄해야한다. 이회창은 법관의 감투를 뒤집어쓴 첫날부터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 민주인사들을 처형하고 민주언론탄압에 앞장섰던 폭군이며 민주의 원수, 언론탄압의 광신자이다.

지난 1961년에 민족일보사건 당시 이회창이 저지른 죄행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당시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은 반민주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반국가단체 동조혐의로 사형시켰고 이 신문을 창간 3개월만에 강제폐간시켰다.

지성인들은 언론탄압, 인권탄압의 광신자인 이회창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폭로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중을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궐기시켜야한다. 언론인들은 사회의 목탁이고 사회여론의 대변자이다. 오늘 언론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반이회창투쟁의 필봉을 드는 것보다 더 신성한 사명은 없다. 불의를 제소하고 정의를 고창하는 바로 여기에 언론인의 본분을 지키는 참된 길이 있다.

그러나 지금 언론계의 일각에서는 언론사세무조사문제와 남북관계문제를 저들의 대권장악음모에 이용하려는 이회창일당의 교활한 책동에 말려들어 그의 시녀노릇을 일삼는 행태들이 속출하고 있다. 만일 언론인들이 민의를 거역하고 불의에 타협한다면 역사와 후세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언론인들이 이회창의 시녀가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로써 진실을 말하고 반이회창 언론활동을 벌여나가야 할때이다. 정의와 양심에 살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언론인들은 자기들이 쥔 붓이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를 해부하는 메스가 되고 한편의 글이 이회창을 심판하는 고소장이 되게 해야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애국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민족의 교사들이다. 정의에 사는 참다운 스승이고 교사라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식민지파쇼독재영구화를 꿈꾸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반민주파쇼악당 이회창을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려야할 시국의 부름에 외면할수 없다. 민족적 양심을 가진 이땅의 모든 교수들은 제자들을 반이회창투쟁에로 적극 선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깨겯고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한다. 교수들의 애국행동은 제자들의 힘이다. 교수들은 4.19와 5.18광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싸운 그 기백과 용단을 되살려 반이회창투쟁으로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떳떳한 자국을 새겨가야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계민중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지성인들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단합된 힘으로 반이회창투쟁에 나서야한다. 더욱이 160여개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운동이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한 조건에서 이에 적극 지지동참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투쟁열기를 더욱 북돋아 주고 광범위한 민중을 반이회창투쟁전선에 묶어 세움으로써 이회창일당에게 무자비한 패배를 안겨야한다.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국민의 버림을 받고 영영 매장될 날이 멀지 않았다. 지성인들은 각계민중과 어깨겯고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림으로써 역도의 마지막 숨통을 기어이 끊어버려야 할것이다.

≪언론이여 이제 그만하자. 온 민족이 너무 아프다≫

1년전 언론사 사장단 ≪남북언론합의문≫ 무색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와 관련한 중앙일간지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미확인 보도, 오보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일부언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선·중앙, ≪묘향산 김일성 인형앞 큰절≫기사 오보

대표적인 오보를 낸 조선·중앙일보는 23일자 1면에 방북자 중에는 ≪묘향산에서의 김일성 인형 앞 큰절≫을 했다는 보도를 했으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kr)≫에 의해 과장된 ≪오보≫로 밝혀졌다. 김숙희 대한 YMCA연합회 회장의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내에 있는 김일성 밀랍상 앞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큰절을 올리고, 몇몇은 엎드려서 크게 울먹였다≫라는 말을 빌어 보도했으나, 김씨는 이런 발언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한매일신문은 22일 대한매일 가판 1면에 ≪일부인사 북 지령 받고 방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사내외의 비판이 일자 ≪방북 일부인사 북과 사전교신≫으로 제목을 수정했다. 이와관련 대한매일 최홍운 편집국장은 ≪가판의 기사는 분명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인하고 ≪검찰의 발표를 바탕으로 기자가 송고를 했고 편집기자 또한 무심코 지령 부분을 제목으로 뽑은 것 같다≫면서≪단순 실수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미디어오늘(http://www.mediaonul.com)은 보도했다.

또 평양 공동기자단 내부에서는 공동기자단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별적 정보에 대한 ≪비공개≫약속을 깨고 임의로 보도한 기자에 대한 징계사건도 일어났다. 통일부 출입기자단(간사 문화일보 이현종기자)은 기자실내 엠바고를 깨고 ≪백두산 방문 때 김정일 찬양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사화한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를 ≪기자실 출입 1년정지 10회 방북취재단 제외≫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년전 언론사 사장단 방북때의 ≪남북언론 합의문≫은 온데간데 없어

남과 북의 언론기관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 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그 이행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의 언론사들과 언론기관들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한다.

둘째, 민족 내부에서 대결을 피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다.

셋째, 언론,보도활동에서 서로 협력하며 접촉과 왕래,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해나가기로 한다. ≪이하생략≫

1년전 8월 11일 남측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해 북측 언론인들과 합의한 남북언론 합의문이다.

합의문이 작성된지 1년이 갓 지난 지금 남측의 언론이 ≪통일≫문제를 대하는 기본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평양에서의 광란이 아닌 남측언론의 광란≫을 지적하고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평양행사를 직접 취재한 대안매체 기자들 8명도 성명을 통해 일부언론의 과장·왜곡보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23일 ≪언론은 사태 해결을 위한 보도에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언론은 연일 대표단 일부의 ≪돌출행동≫을 비판하며 단편적인 개개인사들의 반응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급기야 분명한 취재원에 의존해 확인되지 않은 대표단 발언과 행보 등을 기사화해 평양 방문 전체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언론의 감성적 보도와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이 발언한 ≪평양광란극≫식 반응이 역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24일 ≪언론이여 이제 광란을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언론사 사장단을 포함해 무수한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그 동안 방북한 사람들의 방북행적을 낱낱이 들춰보면 아마도 현행 남한의 법 제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라며 ≪이 모든 행위를 지금 언론이 들이대고 있는 잣대로 재단한다면 그 누구도 돌팔매질을 피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제 그만 하자. 지금까지도 충분히 광기어린 보도가 민족 전체를 아프게 했다. 더 나아간다면 지난 6월 ≪이 가뭄에 웬 연대파업≫식 보도에 이은 제2의 광란보도로 심판 받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7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단체인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통일연대≫를 비롯한 민간통일운동 단체는 이번사태와 관련한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행사를 주최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도 정부의 7명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평양행사의 성과와 통일운동사적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일부 인사들의 언행≫만을 갖고 문제삼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시 이뤄졌던 ≪남북언론합의문≫이 무색하기만 한 현실이다.

2001-08-24 12:45:00

ⓒ 2001 유뉴스

이준하 기자 sub@unews.co.kr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8월 15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311명의 남측 대표단이 8월 21일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평양행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ㆍ북ㆍ해외 민간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성사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는 대단히 컸다. 최초의 만남이란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가단은 5개항의 남북공동보도문을 합의하고 각 부문별 교류ㆍ협력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루었다.

그러나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걸음이 위태롭듯이 최초의 남북간 민간교류는 남북간은 물론 남남간의 갈등과 차이를 절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남측 대표단은 남북간의 차이 못지 않게 내부 입장차이와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행사 첫날부터 개막식 참관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남측 참가단은 다시 폐막식 참관문제와 만경대 방명록 사건 등이 터지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행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참가단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이나 발언이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우리들은 그 행동들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우발적인 일종의 ≪해프닝≫으로 판단했고, 대다수의 대표단 역시 그렇게 보았다.

하지만 이 ≪해프닝≫이 다음날 국내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우리들은 당혹스러웠다. 또 우여곡절과 진통 속에서도 각 부문별 모임을 통해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공동보도문에서도 담겨져 있듯이 내년 민족공동행사 때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이 합의된 소중한 성과는 완전히 무시된 채 대표단 귀환 이후에도 언론이 총동원돼 벌이는 ≪마녀사냥≫식 보도방식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경대 방명록 서명파동만 하더라도 통일부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이 사건이 역사적 의의를 갖는 민간교류에 작은 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 흐름을 뒤집어놓을 만한 중대사안은 아님을 확인하고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남측 언론에서 혹시 부풀려 다뤄질 소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보도를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의 이런 결정은 어떤 연유에서든 지켜지지 않은 채 ≪만경대 서명파동≫은 연일 일간지 1면을 장식해 왔다.

그리고 공동취재단이 해소된 현재는 평양 체류 중 있었던 몇몇 사안들을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몇몇 언론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숙희 전 장관의 발언을 빌려 보도한 ≪대표단 수십 명이 묘향산 친선기념관 김일성 밀납인형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눈물 흘렸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아 공안당국은 8월 21일 대표단의 서울도착과 더불어 16명을 연행했고, 조사대상을 늘이는 등 사건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대표단 중 몇몇 인사들의 문제 있는 행동을 감쌀 의향이 없다. 그러한 행동은 이미 대표단 내에서도 충분히 비판받았던 사안이다. 또 민간차원의 교류가 지니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남북 당국의 경직된 모습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본다. 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행사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부채질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와 이에 편승한 당국의 강경일변도 대응일 것이다.

이에 평양에서 함께 취재에 임했던 8인의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평양행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장, 왜곡보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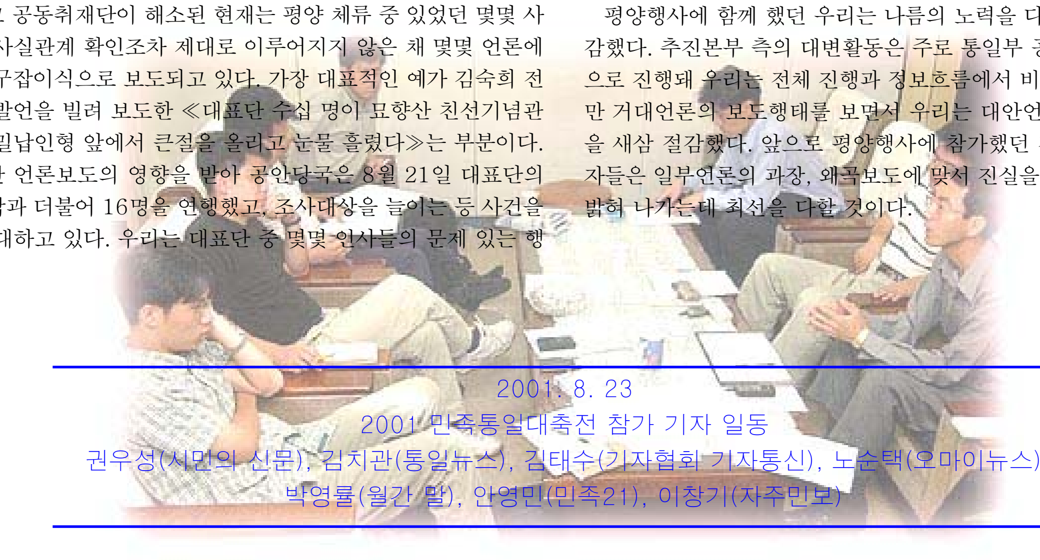
이번 평양행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몇몇 대표단의 우발적인 행동을 침소봉대하고 평양행사가 낳은 역사적인 성과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평양행사 공동취재단은 이번 행사가 남북 당국자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사소한 약간의 돌출 행동이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과장보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었지만 일부 기자가 그 합의를 깨고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파문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과장, 왜곡보도의 근저에는 정부의 언론사주 구속에 대한 언론사들의 조직적 반발이 자리잡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는 남측 대표단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라.

일부언론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린 정부가 판단력을 잃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려한다. 또 애초 민간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고자 했던 정부가 이번 파문의 책임을 대표단에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3. 진보, 대안 언론매체로의 소임을 자각하고 진실보도에 앞장 설 것이다.

평양행사에 함께 했던 우리는 나름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계를 절감했다. 추진본부 측의 대변활동은 주로 통일부 공동기자단을 중심으로 진행돼 우리는 전체 진행과 정보흐름에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거대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대안언론의 시대적 소임을 새삼 절감했다. 앞으로 평양행사에 참가했던 진보, 대안언론 기자들은 일부언론의 과장, 왜곡보도에 맞서 진실을 보도하고, 진상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1. 8. 23
2001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기자 일동
권우성(시민의 신문), 김치관(통일뉴스), 김태수(기자협회 기자통신), 노순택(오마이뉴스)
박영률(월간 말), 안영민(민족21), 이창기(자주민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평양에 갔던 남측대표단 일부성원들을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 가운데 일부성원들을 사법처리하고 관계 장관들을 해임시켜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등이 떠들어 대고 있는 문제, 그 상황부터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정원 : 우선 한나라당의 보수파의원모임인 ≪바른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일부인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개막식에 참가한게 문제가 됐다하며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했고 한나라당 권철현대변인은 정부가 8.15통일대축전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북의 눈치만 살피는 정권핵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는 또 8.15통일대축전대표단이 연방제통일을 상징하고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석해 북의 선전공세에 이용당할 것이 뻔한데도 방북을 허용한 것은 대북굴욕외교라면서 원칙과 투명성있는 대북정책을 펼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남측대표단 성원들이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주석님의 생가를 방문한후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라는 내용을 썼다면서 그것도 문제시해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민련도 한나라당패거리들과 맞장구를 치고 있어 국민들을 분격시키고 있는데 정말 옳지 못한 처사라고 봐요.

사회자 :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일부성원들을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작태에 대해 국민여론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다음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공무원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한 행사에 남쪽대표일부가 참가한 것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문제시하고 있는데 이런걸 다 문제시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하겠는가. 나는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못되게 놀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공중분해되고 만다.≫

충청남도 대전시에 사는 재야인사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을 하자면 남북이 서로 합심해야하고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앞장에 서서 하고 있으니 이런 반민족반통일집단이 어디에 있는가. 남측대표단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사법처리를 당해야할 사람은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이다.≫

그리고 부산시에 사는 주민 송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관련해 일부 성원들을 사법처리하고 관계장관들을 처벌해야한다고 떠들어대니 경악을 금할수 없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는 책동의 일환이다. 한나라당을 그대로두면 정국이 소란해지고 남북공동선언도 제대로 이행할수 없다. 이회창을 즉시 퇴진시켜야한다.≫

사회자 :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 성원들가운데 일부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행사에 참가한 것은 사법처리대상이 될수 없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 옳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죠. 아시겠지만 조국통일3대헌장은 자주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 있고 조국통일의 휘황한 설계도가 담겨져 있는 민족의 통일대강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가진 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죠.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살건 왜 이런 경사스런 통일행사에 참가하지 않겠어요. 남측대표단 성원일부가 여기에 참가했다면 좋은 일인것이지 절대로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를 문제시하고 있는건 그들이야말로 통일을 부정하는 집단이란걸 내외에 다시금 노정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반통일적인 시각으로서는 남북공동선언자체도 성실히 이행할수 없다고 봐요.

사회자 : 물론이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한 것을 문제삼아서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떠드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마디로 반통일적이고 반북적인 태세의 발현이라고 볼수 있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원래 ≪4.8합의서≫가 발표될 때부터 시비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에는 자주적통일부문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이산가족상호방문은 상호주의원칙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떠들어댔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한나라당은 통일을 위해 좋은 말 한마디없이 시비질만하고 뒷다리만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누가 한나라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각계민중이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이회창이 퇴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코 공연한게 아닙니다.

사회자 : 그렇고 보면 사법처리대상은 이번에 평양에 갔던 남측대표단의 일부성원이 아니라 한나라당패거리들이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죄악은 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민중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첫번째 사법처리대상이 되겠지요. 한나라당은 그동안 역사와 민족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저질렀으니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당연히 사법처리돼야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선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남들만 걸고드니 이런 시비꾼들을 어찌 그대로 둘수가 있겠어요. 우환거리는 제때에 제거하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각계민중이 한나라당을 반민족반통일집단이라는걸 낙인한 이상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한다고 봅니다. 관계당국은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에 못이겨 평양에 갔던 남측대표단의 일부성원들을 사법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걸 명심하고 처신을 잘 해야할 것 같아요.

사회자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평양에 갔던 남측대표단일부성원들을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서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떠들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각계민중은 반민족반통일집단인 한나라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한다는걸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회창의 인맥정치 그 실상

이회창이 한나라당총재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내엔 이회창과 진심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이회창이 정치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봐도 차갑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의 속심을 좀처럼 터놓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에게 속을 주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나라당의 중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회창과 동향, 동창, 선후배관계의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들로서 그들은 이회창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따자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회창과 함께 하자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겁니다. 그런데 정치야심가 이회창이 인맥정치로 차기대권의 꿈까지 꾸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정치인이라고 하겠죠.

≪이회창의 인맥정치 그 실상≫ 오일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회창의 인맥정치의 흑막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높아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당권은 이회창의 주위에 포진된 인맥실세들에 의해 장악됐고 그들에 의해 각종 정책적문제들이 조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시간엔 이회창의 인맥정치의 실상을 알아보려고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가신정치, 계파정치청산은 이회창이 이른바 지론으로 내세워 온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이회창은 법조계에 있을때도 그랬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도 가신정치, 계파정치청산을 요란하게 부르짖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집권자들은 인맥에 의해 연결된 가신그룹이거나 계파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가신그룹정치, 계파정치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입에 신물이 나도록 **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와 국정운영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가신그룹, 계파를 위한 것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신그룹정치, 계파정치로해서 정치와 사회생활은 혼란을 면치 못했고 사회에는 불신이 만연됐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이 파탄되고 국정의 총체적파탄을 몰아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각계에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까지 가신그룹정치, 계파정치의 청산을 강력히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회창은 이런 사회적경향을 교묘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는 계파정치와 가신그룹정치를 배격하는 그런 정치인인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자기는 그 어느 상도동파나 동교동계와 결별하는 청렴정치를 할것이라고 쉰소리를 쳤어요.

사회자 : 하지만 현실은 이회창의 가신그룹정치, 계파정치청산구호가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였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이회창은 정치권에 들어서면서 역대 어느 집권자나 정치권자들에 비할수 없이 가신그룹형성을 위해 광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일 : 이회창의 표독스러운 성격과 파쑈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태로 그의 주위엔 누구도 모여들지 않았고 또 가까이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집권욕에 사로잡힌 이회창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어요. 가신그룹형성이 없이는 집권야망을 실현할수 없다는걸 자각한 이회창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지지기반이 될수 있는 그리고 집권욕성취에 써먹을수 있는 자들을 긁어모으는데 주목을 돌렸던 것이예요. 이렇게 되자 이회창에게 빌붙어 앞으로 한자리 따보려는 정치협잡배들이 한나라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회자 : 이회창이 가신그룹을 형성하는데서 주목을 돌린건 학연에 의한 인맥관계를 맺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회창은 주로 자기의 출신교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출신들을 자기주위에 결집시키는 작전을 폈지요.

오 일 : 이회창이 자기 가신그룹에 끌어들인 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예요. 이회창은 한나라당의 핵심요직에 거의 모두 경기고, 서울대 법대출신들을 앉혔어요. 부총재들인 최병렬, 박기태, ***이 서울대 후배들이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김기백, 정책위 의장인 *** 역시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리엔 물론 중하위직까지도 학연에 따라 앉혀놓았어요.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정형근, 제2정책조정위원장 이한국, 법률지원단장 김문규를 비롯한 당직자들 거의 모두가 경기고 또는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사회자 : 이회창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출신들로 가신그룹을 형성해놓고 그들을 발동해 자기를 대선후보로 내세우게 했고 한나라당총재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여당과의 정책대결을 위한 전략전술적계략도 그들을 통해 짜고 있고 지금은 내년도에 있을 대선을 겨냥한 온갖 음모와 모략을 꾸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이회창에 의해 한나라당의 당직에 등용된 경기고, 서울대법대 당직자들은 97년 대선때와 한나라당총재 경선때 이회창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홍보전을 벌여서 그를 내세웠고 4.13총선때도 이회창의 별동대로 활약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온갖 흑색선전을 벌여서 한나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 인물들이 ***지난 대선때 **위원장을 한 김**와 대선계획을 총괄한 최병렬, 이회창정책지원단을 했던 이한동, 홍보전에서 맹활약한 노*상, 그리고 정형근이였지요. 이들이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리에 앉게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이회창의 가신그룹은 지금 내년도 대선을 겨냥한 여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한나라당의 위상을 높여보려고 집단모략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야간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

사회자 : 이회창은 가신그룹을 형성하는데서 언론계출신을 자기 주위에 결집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 일 : 네, 그래요. 이회창은 자기의 집권욕을 성취하는데서 언론을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거예요. 그런데로부터 이회창은 언론인출신들을 한나라당 원내에 상당수 결집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과 SBS방송국출신 맹형규를 홍보특보로, 중앙일보편집국장출신 고홍기를 특보로, KBS 해설위원을 했던 양휘유를 언론특보 그리고 동아일보정치국소속 차장급인 을 운영특보로 앉힌 것은 그 대표적사례입니다. 이회창은 이들을 사주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 자기의 위상을 광고케하는 한편 온갖 흑색선전을 펴게 하는 거예요. 이회창은 극우익보수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를 끌어안기 위해 광분하고 있는데요. 이회창이 당국의 언론사세무조사를 극력반대해 나서는 것은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적, 반통일적언론지를 통해 반통일적인 우익보수세력을 자기의 세력권내에 결집시키고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를 미화합리화하며 자기정적들을 고립약화시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회자 : 인맥정치, 계파정치는 한국정치권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회창의 인맥정치는 역대 어느 정권시대, 어느 계파들의 인맥정치에서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졸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회창은 인맥으로 형성된 가신그룹정치가 자기의 허약한 지지기반을 닦고 그것이 집권욕망실현으로 이어지리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일 : 한국정치사상, 집권사상 인맥정치, 가신그룹정치가 대세를 바로잡거나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모두 실패하고 망하고 말았죠. 이회창의 인맥정치는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아요. 이회창의 인맥정치는 그가 저지른 반민족적범죄행위와 더불어 국민의 지탄속에 영원히 매장되고 말겁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오일씨 모시고 이회창의 인맥정치의 실상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맥정치는 독단과 이해관계의 저축으로 해서 내분과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는거죠.

대전충남학생운동대토론회 준비상황

대전 · 충남 학생운동 대토론회(가칭) 실무자 회의 보고

발신 ; **대전 연석회의 · 충청총련**
수신 : **전대기련 충남지부, 충청학협,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제기되는 정세속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 이후 지역에서의 연대연합을 강화하고자 지역에서의 진보적 학생운동 조직과의 논의장을 만들고자 학생운동토론회를 제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실무회의를 지난 8월 23일에 진행하였습니다.

– 학생운동 토론회를 대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 시기를 9월 15일(가안) 민족 충남대(가안)에서 진행하길 잠정적을 합의하였습니다.
– 주제는
당면한 정세속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과 투쟁과제
학생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토론회 진행은 전대기련 충남지부장님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 다음 실무 회의는 9월 1일에 다시 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운동의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지역에서의 첫 자리를 힘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총화드리겠습니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충청총련





안티조선문화제

발신 : 전국 대학생 조선일보 반대 모임(준)
수신 : 언론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

가.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기조- ≪왜 안티조선인가?≫

1. 들어가며

1883년 한성순보가 발간된 이래 이 땅의 언론역사상 가장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나라를 제국주의 일본에 팔아먹고, 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냉전과 무력통일을 선동하고, 독재의 앞잡이를 자처했던 수구족벌 언론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언론사 세무조사는 그런 수구 족벌 언론이 그 동안 얼마나 썩어 있었던가를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스스로 정론지라 자처하며 신문시장의 70%를 독점했던 조선, 중앙, 동아 등 족벌 언론 3사가 모두 8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고, 언론도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세무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결국 조선, 동아, 국민 등 3사의 사주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스스로 밤의 대통령이라고 일컬으며 어느 사이에 정치 권력조차 초월해버린 무소 불위의 언론 권력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신문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 족벌 언론들은 정당한 법집행인 세무조사를 가리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한다. 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투쟁을 해왔던가를 생각하면 아득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문시장의 70%가 이들 족벌 언론의 수중에 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헛소리에 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세무조사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고, ≪권력 vs 권력≫의 싸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파시스트 정권이 물러난 이후 이 땅의 극우사상은 ≪말의 영역≫에서 설파되어 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권력끼리의 투쟁에서 드러난 비리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세무조사 정국 이후 족벌언론들이 파헤칠 현정권의 비리 또한 ≪세무조사 정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들어있는 ≪정치적 기동≫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의 자기변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안티조선 운동, 언론 권력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운동!

족벌 수구 언론의 후안무치한 횡포는 뜻 있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족벌수구 언론의 선두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실 왜곡과 국민 기만을 저지르고, 극우 파시스트의 진지로 기능 해온 조선일보에 대한 분노는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사상의 자유와 상식 있는 사회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결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안티조선'이라는 기치 아래 서로의 다름을 긍정하면서 조선일보라는 족벌 언론 권력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이 태동하였다. 안티조선 우리모두(http://urimodu.com)의 탄생, 지식인 조선일보 거부 선언 발표,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의 창립,

신문개혁 국민행동의 창립,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조선일보 구독중지 선언,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 '안티조선'이라는 전략적 의제를 던지는 진지로서 기능하기 위해 생겨난 각 대학의 조선일보 반대 모임 등등......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모처럼 찾아온 언론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티조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티조선 운동은 물론 세무조사 정국으로 시작된 운동은 아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진다 해서 그만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다. 언론이 사회의 합리적 소통을 가로막는 성채 역할을 하는 한 사회의 정치적인 진보는 물론 문화적인 진보도 가능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일반시민들의 ≪언론권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언론개혁≫이라는 구호를 들어볼 기회가 많은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을 피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벌여 실질적인 언론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를 챙겨야 한다. 신문고시, 정간법, ABC 인증 정착 등 제도적인 개혁을 국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고,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의 공신력을 떨어뜨려야 할 것이다.

3. 제 1회 안티조선 문화제 - 대학생 안티조선 운동의 전면화!

이 중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여러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홍보활동과 계몽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안티조선 운동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안티조선 운동을 전면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많아졌다.

산발적으로 뿔뿔히 흩어져 진행되던 안티조선 운동이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서로 얽혀야 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각 대학별로 독자적인 안티조선 운동을 전개해왔던 11개 대학 조선일보반대모임이 전국 대학생 조선일보 반대 모임(준)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안티조선 운동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토대로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이하 안티조선 문화제)는 다음과 같은 기조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

첫째, 안티조선 문화제는 조선일보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천민성과 뻔뻔스러움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문화제이다.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읽는다는 신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사회의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 이외의 다른 어느 것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유럽의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귀족들이다. 미국의 대부호들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속세 감면에 반대하고 나선다. 반면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수구 기득권 세력은 어떠한가.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재벌개혁에 악착스럽게 저항하지 않았던가. 대북 화해 정책을 가리켜 '대북 퍼주기 정책' 이니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망동≫이니 하면서 삿대질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공화당 강경파에겐 이득이 될 수 있을 지언정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정책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자식만큼은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 저지르는 그들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천민성과 뻔뻔스러움을 견지하고, 역사의 지체를 더욱 부추기는 이들 수구 기득권 세력을 추방하기 위한 함성을 모아내는 마당, 이것이 안티조선 문화제인 것이다.

둘째, 안티조선 문화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문화제이다. 지난 20세기를 돌이켜 볼때, 이 땅에 진정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일제 때는 치안 유지법, 해방 이후에는 국가 보안법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온갖 악법들이 민중을 옥죄고 억눌러 왔다. 뿐만 아니라 수구 족벌 언론, 특히 조선일보의 횡포는 법률 못지 않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였다. 1998년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른바 ≪사상검증≫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여 페이지

에 달하는 논문에서 불과 한 두 줄을, 그것도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멋대로 고쳐 쓴 상태로 인용하며 이를 가리켜 ≪사상이 의심스럽다.≫느니 ≪충격적 한국전쟁관≫이니 하며 빨갱이로 모는 모습. 이런 작태를 보고 나면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밑거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티조선 문화제는 그 동안 거대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미디어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미디어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를 외치는 문화제이다. 지금까지 거대 미디어를 지배하던 언론 사주나 경영진, 편집진들은 미디어 수용자 알기를 자기 발톱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겼다. 이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도 미디어 수용자가 이를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쌍방향성을 전제로 한 미디어의 탄생은 이런 미디어 지배자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독자가 기자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탄생한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창립 1년만에 영향력 있는 매체 10위안에 들어간 것은 이런 미디어 수용자의 권리 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일보라는 거대 미디어에 맞서 이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독자에게 있음을 널리 선포하여 저들의 후안무치한 사실 왜곡을 감시하기 위한 문화제, 이것이 바로 안티조선 문화제인 것이다.

넷째, 안티조선 문화제는 안티조선이라는 사회적 의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되어 즐겁게 교류하고 어울리는 문화제이다. 지금까지는 사회 진보를 외치면서도 신념의 차이,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활동하며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제 안티조선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 진보를 염원하느냐,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배를 용인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전선이 설정된 만큼, 그전선에서 같은 편에 속한 동지들끼리는 서로의 다름과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획하는 안티조선 문화제가 바로 그런 마당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원한다.

나.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기획안

1. 행사일정 및 장소

9월 19일(수) ~ 22일(토)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민주광장, 위당관, 대강당, 백양로)

2. 행사내용

(1) 릴레이 강연회(장소: 위당관-B102)

-정지환(말지 기자) ≪조선일보의 어제와 오늘≫

-진중권(아웃사이더 편집주간) ≪친조선 인물열전≫

-노혜경(아웃사이더 편집위원) ≪조선일보와 문화 권력≫

-김동민(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대표) ≪조선일보 반대운동의 당위≫

*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후 6시에 진행

(2) 다큐멘터리 상영전(장소: 대강당)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오후 4시에 한번

* MBC 미디어 비평의 안티조선 자료

* 옥천의 안티조선 운동 관련 영상 자료

* 안티조선 관련 영상물 제작의뢰

(3) 문화공연 및 ≪전국 조반모 출범식≫(장소: 민주광장)

-인디밴드와 대학 노래패중 안티조선 문화제의 기조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섭외

-문화공연이 시작되기 전 전국 조반모 출범식 거행

* 9월 21일 오후 7시(대략 3시간 규모의 행사 준비)

(4) 거리 선전전(장소: 백양로)

-각 단위나 학교별로 선전물 제작, 홍보전 기획

* 행사기간 동안 지속

(5) 방우영 재단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장소: 학관 앞)

- 연세 총학과 함께 방우영 재단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 진행

* 행사기간 동안 진행, 향후 6차내지는 7차 선언으로 이용

(6)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공동개최

* 출범식을 거행하면서 동시에 ≪전국 조반모≫ 명의로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에 가입

* 행사일정 공유, 여타의 문화행사 공동주관(실무적인 후원 가능)

* 추가로 진행할 재기발랄한 사업 아이템 요망

3. 예산책정

(1) 강연회(합계: 100여 만원)

-강사료(5-7만원 예정)

-포스터 제작(400장 제작하면 대략 60만원정도 예상)

-팜플렛 제작(150부씩 4번, 20만원)

(2) 영상물 상영

-기자재 총학에 지원의뢰

(3) 문화공연(200여 만원)

-출연료(A급, 밴드: 100만원, B급: 50만원으로 알려짐. 4개팀 정도 섭외 예정)

-무대설치(각 대학 총학에 의뢰)

* ≪문화제 기획단≫ 출범과 아울러 예산책정과 비용조달 문제를 일차적으로 협의

* 문화제 비용조달을 위한 일일주점 제의(행사기간 동안 또는 행사전에)

* 참고사항: 시민연대가 1주년 기념행사로 일일주점을 계획

4. 행사주체

전국 조반모가 행사 주체가 되고 공동개최 단체로 전대기련, 전국신방과 연석회의 등이 물망. 추후 다른

단체에 제안 긴요

5. 행사후원단체

민언련,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신문개혁국민행동, 언론노련, 민주노총, 연세 총학, 고려 총학, 관악

총학, 중앙 총학 등

* 단체별 후원금은 대학별 총학이 30만원에서 50만원

* 공동개최를 한다면 각 단위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부담 요망

* 총 소요예산: 400만원 미만 선에서 책정

다.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후원신청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대학생 조선일보 반대 모임 (준)의 구성 단위인 각 대학

조반모에서 회비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 총학에 지원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다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티조선 문화제의 기조에 동의하시고, 기획안에서

가능성을 보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계좌

한빛은행 예금주 김성원 126-426666-02-101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공동기획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조반모 임시대표 오승훈: (손전화 : 018-236-7523, painbird76@hotmail.com),

전국 조반모 임시부대표 강영준: (손전화 : 011-9955-3793, glekang@chollian.net),

제1회 안티조선 문화제 공동기획단장 김성원:(손전화 : 011-9630-5791, uniscience@freechal.com)

우리의 8.15를 찾자

신 조 국

이 땅에 8.15는 또다시 왔어도
어디에 있는가
만세의 함성으로 삼천리가 끓던
광복의 그 8.15는 정녕 어데 있는가

빼앗긴 나라 찾고 기쁨에 울고 웃던
그 환희를 우리는 지금 맛보지 못한다
외세의 구둣발아래 짓밟힌
한많은 민중의 함성 오늘도 계속된다.

목메게 찾는다, 8.15! 바로 이날에
짓밟힌 그 8.15를 찾는다

가자! 거기에 있다
우리의 머리위에
군사대결의 가시철갑 꾹꾹 눌러씌우려는
터럭손들의 거만한 짓 뿌리치는 거기에 있다

살상무기 강매로 수억원을 빨아내고
민족끼리 싸움질시키려는 양키들
무모한 짓 단죄하는 거기에 있다
그놈들 바다건너 내쫓는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가자
뜻이 같은 사람도 뭉치고
함께 가다 등돌렸던 사람
떨어져 서운한 사람도
이제 모두 손잡고 뭉치어가는 거기에 있다

가자, 연대하고 연합하며
감격과 회한이 얼크러져
눈물의 바다를 펼쳤던 6.15
공동선언실현의 장으로 가자

거기에 있다
우리의 8.15!
오, 통일로 맞을
감격의 8.15!
우리의 8.15를 찾자



주체 90, 8월 19일

재야인사 김모씨는 한나라당패거리들이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의 방북활동을 시비질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측대표들의 방북활동은 문제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남측대표단 성원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열린 통일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온 겨레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등을 구성부문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헌장*******참가해서 이북의 동포형제들과 목소리를 합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남측대표단성원들의 의로운 행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거부하고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다.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를 사사건건 시비하며 훼방해온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번에 또다시 드러낸 작태는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통일을 하루빨리 성립하려면 반통일집단인 한나라당을 지체없이 폭파해버려야한다.

세계 많은 나라의 각계층 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방문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방문성과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페루 사회당 서기장은 온 세계를 들었다놓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 사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니 대통령보 외무 및 협조성 처장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은 지금 세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영도자님의 탁월한 외교전략에 의해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평양에 찾아가며 북을 적대시하던 서방나라들이 북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북은 외교분야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모스크바방문의 의의를 강조하고 방문성과를 축하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서기장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번에 조러 두 나라 사이에 친선관계를 자주의 원칙에서 한단계 더 높은 **으로 올려세우셨을 뿐 아니라 세계자주화위업을 가일층 촉진시키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은 이북 민중을 고립압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미행정부를 비롯한 국제반동들에게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발표 4돌에 즈음해 2일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작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그분께서 생애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불면불휴의 노고와 위대한 업적을 집대성하시고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강령적 과제를 제시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작에서 새롭게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한반도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통일대강으로써 한반도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의 지름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한 6.15공동선언은 미제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그 이행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1세기태양맞이모임≫ 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4일 에콰도르 꾸엔까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8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8월 19일 함경북도 주둔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8월 19일 역사적인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노동자계급과 상봉하셨습니다.

부산시내 모주택가에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축하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사람들을 격동케 했습니다. ≪태양회≫ 명의로 된 대자보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고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신 김정일영도자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정일영도자님은 세계평화의 화신이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모두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뜻을 따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투쟁에 더욱 매진하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이 20일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대부위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민련 유은영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급진통일세력들이 보여준 언행은 반국가적인 시위로 용서할수 없는 일이라느니 대한민국인이기를 포기하고 북의 통일전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느니 뭐니하며 친북행위를 한 이들을 사법처리하라고 떠들었습니다.

자민련부대변인의 이같은 망언은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인사들을 친북으로 몰아 탄압할 것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등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합류해 나서는 용납할수 범죄적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 인사들이 개폐막행사에 참가한 것은 통일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써 범죄시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이 이적행위라느니 뭐니하며 탄압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자민련이 합세하고 나선 것은 저들도 반통일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은 16일부터 18일까지 동해안에서 이른바 동해상에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와 **을 격추하기 위한 대규모해상기동훈련을 감행했습니다.

해군은 구축함과 호위함 등 10여척의 함정과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대잠헬기 등을 동원해 대규모 하계해상기동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상의 공중, 수상,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대응, 제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강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실탄까지 발사하는 등 실전과 동일한 개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전쟁과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20일부터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연습에서 정부는 과학화, 정보화되어 가는 미래전 양상을 감안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8.15광복절을 맞으며 통일대축전이 진행되는 등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정부당국이 여러가지 구실을 붙이며 대규모전쟁연습을 잇따라 벌이고 있는 것은 통일열기를 억누르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특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6.15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해 세계 무기판매액이 지난 99년보다 8%늘어난 369억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미국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무기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의회에 **한 연례군사보고서에서 보면 지난해 미국무기업자들의 판매계약고가 186억달러로 세계 전체 무기판매고

의 절반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68%는 개발도상국들에 판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 있지도 않는 남침설을 떠들며 한국에 거액에 달하는 최신무기들을 강매한데 이어 올해에도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체 90, 8월 22일

각계에서 삼복의 무더위에 러시아방문의 수만리길을 다녀오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21일 평양에서 있은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대표단 가운데 16명을 긴급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각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공안당국은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남측대표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전국연합 공동의장, 한총련회원등 16명을 긴급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 가운데 한총련회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강정구교수 등 11명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공안수사대를 수사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16명 외에 통일대축전 개폐막식에 참가한 70여명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안당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만경대 방명록과 통일대축전 개폐막제행사참가문제인 것입니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 인사들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이룩하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자≫, ≪전민족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자≫ 등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정신을 이어 조국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데 공안당국은 고무찬양이니 뭐니하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탄압을 감행했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식행사에 참가한 통일연대와 민주노총, 한총련 등 대표들에 대해선 방북조건을 위반했다느니 뭐니하며 친북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심지어 남측대표단의 핵심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전에 북측과 접촉했으며 행사참가를 목적으로 해왔다느니 뭐니하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등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기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핵심인사들을 간첩혐의로 몰아 탄압해보려는 범죄적인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5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한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소동은 매국이 애국을 매도하는 반민족, 반통일적 범죄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총련 대학생과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회원 등 130여명은 22일 밤 9시쯤 긴급체포된 민족통일대축전 대표단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과 서울경찰청공안수사대 등을 항의방문했습니다.

6.25전쟁초기에 발생한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근리사건피해자들의 법정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변호사 마이클 최씨는 22일 미국방부에 노근리사건조사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면서 이번주 말까지 응답이 없으면 미국정부를 정보자유법위반혐의로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0년 6.25전쟁당시 충북 영동군 노근리지역에서 2일동안 공중공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미정부측 문건이 이 사건을 처음보도한 AP취재팀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지역정세가 또다시 첨예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주체 90, 8월 23일

동두천 민주시민회 회원 윤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의 성과를 축하하는 간담회에서 그분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방북인사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파쇼폭압책동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22일 전국의 성인남녀 900명을 상대로 ≪방북인사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제를 갖고 설문조사를 한데 따르면 응답자의 98.7%가 이를 6.15공동선언을 뒤집어엎고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반민족적 행위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방북인사들에 대한 폭압선풍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의 앞장에 선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극우익세력의 책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는 반통일분자들의 계획된 책동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방북인사들에 대한 폭압책동은 북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워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위험천만한 작태라며 이는 온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행각을 마치고 돌아온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을 악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회창은 남측대표단의 행사참가와 만경대방문에 대해 있을수 없는 일이라느니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국민내부에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반통일분자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사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이회창의 망언을 용서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축전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공동행사였는데 행사참가가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이회창의 망언은 흑백을 뒤집어엎는 궤변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수많은 인사들이 개폐막행사에 참가한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의로운 행동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일당이 이를 문제시하고 북을 자극하는 망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통일을 반대하는 민족반역행위라고 아니할수 없다.

종교인 이모씨는 평양축전과 관련한 이회창의 악의에 찬 발언에 분노를 표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이번 일로해서 국민내부에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고 떠들며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것으로 평양축전참가가 문제시되고 공안당국의 탄압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바로 이회창일당이 행사참가자들을 친북세력 등으로 몰아붙이며 보안법에 걸어 사법처리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한나라당일파들의 책동때문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측대표단의 방북승인문제까지 걸고드는 것을 보면 이회창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이회창을 정계에서 당장 퇴진시켜야한다.≫

한편 시민들은 이회창일파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부추김을 받아 공안당국이 평양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애국적인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강독극물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부소장 맥칼랜드에 대한 재판권을 주한미군이 한국법원에 양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우롱하는 미군의 이같은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미군은 우리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미군범죄자를 지체없이 한국법정에 세워야할 겁니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경남 거제에서

보도연맹사건으로 모두 870여명의 양민이 학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오후 거제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해학살자거제유족회 창립대회에서 거주지역의 ** 주제발표를 위한 ***경남 근현대사연구회 연구원은 거제지역에서의 보도연맹원 학살은 1949년 4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학살자수는 모두 87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일본당국자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단행한것과 관련해 2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8월 24일

공안당국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횡포를 자행해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된 것처럼 공안당국은 23일 오후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방북인사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횡포를 감행했습니다.
공안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들은 범민련부의장 김규철씨 등 범민련간부 6명과 강정구교수입니다.
파쇼공안당국은 범민련간부들이 북측의 3개단체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느니 뭐니하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그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과 반국가단체가입협의를 적용해 이같은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강정구교수에게도 북측을 이롭게 했다느니 뭐니하며 이른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공안당국은 특히 범민련간부들과 강교수의 이번 통일대축전행사기간동안의 행적은 물론 방북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습니다. 강교수의 경우 지난해 4월 서울대 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공안당국이 통일애국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졸한 사전준비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지상의 과제이며 조국통일에 최대 애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범민련을 비롯한 많은 단체의 인사들이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는 하나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행사에도 주저없이 참가했던 것이고 북측단체들과 여러 갈래의 접촉과 만남의 장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으로써 온 겨레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이들의 의로운 소행을 범죄시하며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애국에 칼질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탄압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과 같은 극우세력의 요구대로 통일애국인사들을 제거함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계획된 책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공안당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합니다. 공안당국은 국민의 통일열망에 도전해 무분별한 파쇼폭압책동에 계속 집착한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북인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만행을 즉시 중지해야 할것입니다.

전국연합은 22일 한나라당 권철연대변인의 평양축전 파문과 관련해 전국연합 등의 특정인을 거론하며 친북인사로 근거없이 매도했다면서 사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강독극물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맥팔랜드가 징계처분을 받고도 올해초 영안실 부소장에서 소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총외채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많고 단기외채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3일 영국 사회주의레이버당 대표단, 중국 홍십자회대표단 등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영국 사회주의레이버당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것과 관련해 19일 그분께 재러조선공립중앙협회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해 여러 나라 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8월 25일

대구에서 활동하는 한 통일운동가모임이 20일 시내모처에서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하는 모임을 갖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조직책 김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이 갖는 역사적의미에 대한 기조보고를 한데 이어 여러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연사들은 일치하게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인류의 평화와 민족통일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역사적쾌거라면서 그분을 세계평화의 견결한 수호자, 조국통일의 유일한 구성, 절세의 애국자로 격찬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주통일의지가 집대성된 6.15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이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회창 등 통일훼방꾼들을 반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 맹세를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호전집단이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한민전 대변인은 한민전 창립 32주년을 맞으며 2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7대종단은 한나라당이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인사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출한 임동원통일부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반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육군미군사령부는 22일 대구 구치소에서 군사령부예하 화학중대와 육군 50사단 기동타격대대 화학대장병 50여명과 지역관공서와 경찰서, 소방서 관계군이참가한 가운데 민, 관, 군합동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친일매국역적의 후손인 이회창은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함께 쿠바국가평의회 피델 카스트로의장의 탄생 75돌에 즈음해 축전을 보내신데 대해 그로부터 답전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하신 것은 조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아시아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조성하셔서 역사적인 세기로 됐다며 영도자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발표 4돌에 즈음해 지난 2일 전인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인도위원회,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 방송통신이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독일잡지 ≪경제기관≫ 제32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영원한 복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애국의 길

http://jajoo.pro.tok2.com

